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 월  
석사학위논문

#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 은 숙

#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 The Effects of Childcare Policy on Married Woman's Childbirth Intent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2016년 2 월 25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 은 숙

#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희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은숙

## 한은숙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金龍燮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眞淑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朴喜緒 (인)

2015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제 1 장 서 론</b> .....	1
제 1 절 연구목적 .....	1
1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b>제 2 장 이론적 배경</b> .....	 5
제 1 절 저출산의 동향과 문제점 .....	5
1. 출산율 동향 .....	5
2. 저출산의 원인 .....	6
3. 저출산의 문제점 .....	9
제 2 절 출산의지 .....	12
1. 출산의지의 개념 .....	12
2. 출산의 요인 .....	13
3. 출산의지의 영향요인 .....	17
제 3 절 영유아보육정책 .....	25
1. 영유아보육정책의 개념 .....	25
2.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정 .....	26
3. 저출산 보육정책 .....	28
4. 영유아보육정책의 주요내용 .....	32
제 4 절 외국의 출산관련 보육정책의 동향 .....	37
1. 스웨덴 .....	37
2. 프랑스 .....	38
3. 독일 .....	40

4. 일본 .....	41
5. 정책적 시사점 .....	42
<b>제 3 장 연구설계 .....</b>	<b>44</b>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	44
1. 연구모형 .....	44
2. 가설의 설정 .....	45
제 2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	46
1. 출산의지 .....	46
2. 영유아보육정책 .....	47
3.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	49
4. 설문지 구성 .....	49
<b>제 4 장 연구의 실증적 분석 .....</b>	<b>52</b>
제 1 절 연구의 방법 .....	52
1.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	52
2. 표본의 개인적 특성 .....	52
제 2 절 측정도구 검증 .....	54
1. 타당도분석 .....	54
2. 신뢰도분석 .....	56
제 3 절 기술통계 .....	58
1. 변수의 기술통계 .....	58
2. 변수의 특성별 차이분석 .....	59
3. 변수의 상관분석 .....	65
제 4 절 가설 검증 .....	67

1. 출산의지에 대한 영유아보육정책의 영향 .....	67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68
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	68
4.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	70
제 5 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83
1. 특성별 차이분석결과 .....	84
2. 가설의 검증결과 .....	86
<b>제 5 장 결 론 .....</b>	<b>90</b>
제 1 절 연구의 요약 .....	90
1. 특성별 차이분석결과 .....	91
2. 가설검증 분석결과 .....	92
제 2 절 정책적 함의 .....	94
제 3 절 향후 연구의 방향 .....	96
<b>참고문헌 .....</b>	<b>98</b>
<b>부록(설문지) .....</b>	<b>105</b>



## 표목차

<표2-1> 출산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	22
<표2-2> 제2차 새로마지플랜(2011~2015) .....	29
<표2-3> 제3차 새로마지플랜 기본 계획 추진 방향(2016~2020) .....	31
<표2-4> 제2차 기본 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의 차이점 .....	32
<표3-1> 설문 구성 및 질문내용 .....	50
<표4-1> 표본의 개인적 특성 .....	53
<표4-2> 요인행렬표 .....	55
<표4-3> 신뢰도 분석 .....	57
<표4-4> 기술통계량 분석 .....	58
<표4-5> 출산의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분석 .....	59
<표4-6> 맞벌이·주변가족육아지원 T검정 .....	60
<표4-7> 자녀가치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분석 .....	61
<표4-8> 보육비 지원의 개인적 특성간 차이분석 .....	62
<표4-9> 보육시설 확대의 개인적 특성간 차이분석 .....	63
<표4-10> 사회문화 조성의 개인적 특성간 차이분석 .....	63
<표4-11> 누리과정 제도의 개인적 특성간 차이분석 .....	64
<표4-12> 변수간의 상관관계 .....	66
<표4-13>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67
<표4-14>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68
<표4-15>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	70
<표4-16>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	71
<표4-17>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	72
<표4-18>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 과분석 .....	73
<표4-19>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	73
<표4-20>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 74
<표4-21>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 효과분석	..... 75
<표4-22>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	76
<표4-23>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76
<표4-24>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지원 조절효과 분석	..... 77
<표4-25>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78
<표4-26>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 78
<표4-27>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 분석	..... 79
<표4-28>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 80
<표4-29>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 80
<표4-30>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 분석	..... 81
<표4-31> 연구가설 검증결과	..... 81

## 그림 목차

[그림3-1] 연구모형 ..... 44

## ABSTRACT

### The Effects of Childcare Policy on Married Woman's Childbirth Intent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Han Eun-Suk

Advisor : Prof. Park Hwie-Seo.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investigate whether the childcare policy has any impact on the willingness of married women's childbirth. Currently, Korea's low birth rate is very seriou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is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World's total fertility rate in 2015 is 2.51 people, while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n 2014 is 1.2 people which is less than half of the world's total fertility rate. Such a low fertility phenomenon makes se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nd the burden to feed the aging population is increasing.

Many national budget is compiled for the major childbirth policy, and research is actively underway in the birth rate problem in academia, but it has not increased the birth rate.

Therefore, this research is aimed to look how currently being conducted childcare policy had any effect on fertility willingness and provide direction for the low birth rate solution. The configura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parents to send the children to the day

care center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ere requested to answer given questions and surveyed.

Total of 250 part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15 were collected, 208 parts of which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sampling method was comforts extraction (convenience sampling), one of the non-probability sample extraction (nonprobability sampling).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by the frequency analysis, T test and the members arranged distributed analys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childcare policy. Th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prove reliability through each factor analysis, to analyze if the dependent variable, fertility willingness and the four variables of childcare policy are corelated and impact between them.

The result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married women for the childcare policy if it is helpful to raise their children were examined as ordinary. In addition, higher awareness of the childbirth of married women when around family care support.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creating condition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directly, as well as policy support.

Second, investigation of the will of child birth by personality traits was most high in 36-40 years old, and the that of married woman with more than six million won higher incomes are the highest. This represents that the women with more old and stable income have more willingness of Childbirth.

Third, to verify if the adjust variables has adjust effect in the adjust effect analysis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childcare support, child care expansion, influence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to willingness of childbirth is depending on the child's worth.

However, socio-cultural composi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gulatory effects analysis. In addition, effects of childcare expansion on

willingness of childbirth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education. And, effects of childcare support on the willingness of childbirth showed that it depends on the surrounding family support. That is the government's childcare support has been found to affect positively the willingness of birth when there is family care support around.

In this study, the factors that lead maternity commitment to child care policy based on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low birth rate were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child care policies. Looking to present a rational policy implications of child care policies directly related to childbirth commitment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care support policies require a variety of approaches tailored to childcare support for working-Family Balance.

Seco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women social culture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created.

Third, the childcare and education courses that are dual to the day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have integrated into Nuri Curriculum policy, but it is not stabilized yet and need to be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urth,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open day care center condition creating policy which directly relieve the burden of bringing up children should be prepared.

Fifth, one of the variables of child care policy for a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childbirth of married women, expanding public daycare centers will have to be presented in detail.

A new day care center that can function as public childcare infrastructure and parents can leave their children in trust by adapting public and autonomous daycare center is necessary.

Keywords: child care policy, delivery commitment, the low birth rate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한국 사회는 저출산이 서구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출생이 한 국가의 인구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며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2009년 유엔 미래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200년에는 인구 50만 명의 중도시가 되며 2700년엔 인구가 없는 나라가 되어 국가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다(국방일보, 2015.05.27).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들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와 구조가 자녀를 생산수단으로 여기면서 출산수준은 합계출산율<sup>1)</sup> 기준으로 1960년대에 6명으로 아주 높았으나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에 이어 2005년 1.07명으로 현저하게 떨어졌다(통계청, 2015). 출산율 감소는 사회발전에 따른 정부 정책의 인구 억제정책에서 기인한다. 1960년대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부 주도 아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1961~1995)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가족 계획사업인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에 합계출산율이 1.7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급격히 낮아졌다. 2014년 현재 합계출산율 1.2명으로 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해당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하위에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천은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수준이 이미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수록 생산성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장래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구조를 변경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는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

1)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일정기간 동안 서로 다른 출생코호트(cohort)의 출산 경험을 합성하여 추정된 출산력 지표로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 약 2.1명(부부가 평균 두 자녀를 두는 수준)으로, 동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사회문제 발생(유소년 노년인구 부양비 증가)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노동력 저하를 통한 경제성장 악화로 미래사회에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양면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경제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증대는 부양세대와 피부양세대간의 갈등심화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진면, 2014).

저출산 현상에 대한 논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력 변천의 고전이론(Notestein, 1953)부터 가족규범체계 등의 전과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Cleland & Wilson 1987)까지 볼 때 출산력 변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이다(박중서 2014, p.13). 저출산에 따른 제도 개선 노력과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다른 관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 즉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영유아보육정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1921년부터 시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였다. 1994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95~'97)을 실시하여 보육시설이 1995년 9,085개소에서 2014년 현재 43,742개소의 보육시설을 확보 하였다(보육통계, 2015).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도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인프라 구축 등은 정부정책의 중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용복, 2004).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가정 양립제도 개선 및 보육료 지원 등 육아 양립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육제도의 보완을 통한 보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지원 확대, 맞벌이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충, 바우처 제도인 아이사랑 카드, 아이돌보미 지원(김선희, 2013), 누리과정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보육시설 환경, 누리과정 지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해야 하는 것은 출산과 양육



의 주체인 여성의 욕구 파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하여 2005년 ‘새로마지플랜’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출산에 개입하여 시행하였다. ‘새로마지플랜’ 정책 사업에서는 임신과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으로 나누어 제 1차 계획(2006~2010), 제 2차 계획(2011~2015)으로 정부에서 양육지원정책인 보육부분에 매년 예산을 증가 시켜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부에서는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출산에 직접적인 구조적 문제(고용·주거·교육) 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통계청,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안, 2015). 미래 사회발전의 확보를 위해 국가책임의 보육 실시와 사회적 양육지원체계 강화로 출산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많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결혼에 대한 편견,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출산에 대한 기피현상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련변인이 무엇인지 관련하여 출산과 영유아보육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관련된 영유아보육정책의 중요성에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2장에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출산에 관한 논의 및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정책 현황과 외국의 출산 관련 보육정책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도구와 설문지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 실증분석 단계로 표본을 선정하고 측정도구 검증 및 설문 조사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문헌조사 방법에는 기존의 석·박사 논문, 학술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을 통한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의지에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및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개념과 주요정책을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방법으로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기혼여성)를 대상으로 표본을 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정책의 방향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통계기법을 처리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저출산의 동향과 문제점

#### 1. 출산율 동향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로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 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지표로 사용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한다(한윤옥, 2011).

첫째,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 합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만 32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만 32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된다.

둘째, 5세 계급으로 계산된 연령별 출산율에 5를 곱하는 방식인데, 이들 간의 관계를 공식화하면 '합계출산율=연령별 출산율 합= $\sum$ 5세 계급연령별 출산표 $\times$ 5'가 된다. 이 방식은 전체 여성 수는 미혼·기혼을 구별하지 않고 계산된다. 때문에 한국과 같이 혼인을 하지 않는 미혼 여성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이진면 외, 2014, p.18).

2014년 출생통계 분석 결과 2014년 총 출생아수는 43만 5천 4백 명으로 전년(43만 6천 6백 명)보다 1만 2천명 감소하였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2005년(43만 5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시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출산율 감소로 1995년 인구억제정책이 폐지되면서 2004년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되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 2. 저출산의 원인

결혼(marriage)은 자녀 출산을 위해 상당기간 지속되는 관계가 요구된다. 결혼의 주요 목적은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기 위한 것이지만 각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의무는 가정을 부양하고, 여성의 의무는 가사와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법적 계약이다. 즉 결혼은 여성의 노동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출산은 우리의 생활과 인구 성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출산이 여성의 의무이지만 여성의 출산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출생과 관련된 인구학은 미국에서는 사회학의 한 분야로 시작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시작하였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 보건학 분야에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사회인구학은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지리학, 보건학 등 여러 학문들을 포괄하고 있다(한윤옥, 2011).

20세기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출산을 늦게 하고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Rindfuss, Swicegood 과 Morgan, 1988).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무자녀(child-free)」 생활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책 연구정책 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 레이미(James Ramey)는 지금 인류는 자녀중심에서 어른중심의 가정으로 대거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자녀 갖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보급되고 있다”(엘빈 토플러 저·이규행(역), 1989, p.263). 근래에, 출산 시기의 나이 차이는 증가해 왔지만 ((Rindfuss, Morgan 과 Offutt, 1996),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의 출산에 대한 교육 패턴과 최근 20년의 교육 패턴 사이에는 잠재적인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초기 성년기 동안의 출산을 더 자주 미루어 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젊은 성인 출산에는 비교적 학력차이가 적었다. 왜냐하면 모든 학력 수준의 젊은 성인 여성들의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세기의 거의 대부분에 대한 출산 시기의 학력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정 인구학적 기법은 최근의 지속적인 학력 차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거꾸로 말하면,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30세 이후로 출산을 미룬 여성들은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를 가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초기 성년기에 출산을 미루었던 대학 졸업자들은 중기 성년기 출산율이 증가했지만, 초기 성년기에 출산을 미루었던 4년제 이하 대학 졸업자들은 나중 재출산 가능 시기에 출산율이 조금만 증가했거나 증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냈었다 (Steven, 2000, p.115).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초혼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자녀수 감소로 부모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 하여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개인주의 생활방식이 일반화 되었다. 초혼 연령의 상승은 실제적인 가임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고 미래 자녀 양육의 부담감으로 소자녀 출산을 유도하기도 한다. 여성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가임 능력이 감소하여 30세 이하의 가임 여성이 한 달 중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이지만 나이가 많은 40세 이상의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은 5%로 추정된다(한윤옥, 2011).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혼연령이 여성의 초혼평균 연령은 1995년 25.4세, 2005년 27.7세, 2014년 29.8세이며 2014년 남성 초혼평균 연령 남성 32.4세에 비해 2.6세(통계청) 적으며 지속적인 상승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이다.

가치관은 Fishbein과 Ajzen이 제시한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TRA)에 근거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써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자녀관을 의미한다.

전통사회에서 당연시 되었던 자녀 출산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으나 그 정도는 점차 약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1).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비혼화 현상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지내는 1인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가족에 구속받기 싫어하는 젊은 층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산 필요성에 대한 전국 출산력과 가족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산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2000년 58.1%, 2005년 23.4%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1997년 9.4%에서 2000년 10.0%로 매우 낮았으나, 2005년 34.9%로 증가했다(정상면, 2005). 그 결과 자녀 출산이 전통적 가치관인 가문계승, 노후보장 등이 필수였다면 현대는 자녀 출산이 하나의 선택으로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출산을 하는 것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셋째,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인구이동이 많아졌다. 한국전쟁(1950년)이 끝나고 취약한 경제 수준을 탈피하기 위해서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 아래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진행 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서구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겪으면서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면서 확대가족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되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켰다(김승권 외, 2000). 그런데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녀의 많은 수가 보편적이거나, 산업화된 도시생활에서는 주거환경 및 자녀양육부담 등 직접적인 경제행위와 관련되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넷째,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확대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경제적 투자 가치는 경제적 측면에서 각종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비용부담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강화될수록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는 것과 관련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모들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자녀양육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정혜선 2006, p.19). 하지만 가계 내에서 자녀수가 점차 증가한다면 자녀에 대한 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인 자녀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다섯째,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은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 출산에 대한 양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접근성이 낮으며, 휴직과 동시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의 재취업이 거의 7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단

절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혼적령기인 20대 중후반에서 첫아이 출산 이후인 30대 초중반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고 한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는 2014년에 조사한 결과 결혼(41.6%), 육아(31.7%), 임신·출산(22.1%), 자녀교육(4.7%) 순이고, 20~30대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인 반면, 40세 이상부터는 20%대로 응답율이 떨어졌다(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5, p.35).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이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재취업에 성공할 기간은 2년 이하라고 한다. 경력단절 절반이 30대이며 고학력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저출산의 문제점

저출산은 먼저 인구수 감소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노동력 감소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비중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이삼식, 2010). 저출산이 장기화 될수록 잠재성장율이 2000년대 4.6%,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윤은숙, 2011). 낮은 출산수준은 결과적으로 젊은층과 노동력 인구의 비율이 크게 낮아질 뿐 아니라 노령층의 비율은 크게 높아져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 1) 생산인구의 감소-가족기능의 약화

저출산에 따른 변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가족기능의 약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은 인구수에 따른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1960년에는 유소년(0~14세) 인구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안정된 구조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 감소로 유소년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청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는 개인 자신의 삶의 형태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 가족기능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가족기능의 변화로 자녀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족의 기능은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고 그 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가르치는 기능, 즉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코호트요법<sup>2)</sup>(Cohort components method)에 의해 2013년에서 2040년까지 시도별 인구규모 및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추계한 결과이다(이진면 외 2014, p.63).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의 중위가정에 따르면, 전국인구는 2013년 5,022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에 이르러서는 5,216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차츰 감소하여 2040년에는 5,10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국가통계포털 KOSIS,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는 2028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마이너스 자연증가가 시작될 전망이다. 출생아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중위연령<sup>3)</sup>은 2014년 40.2세에서 2040년 52.6세로 약 12.4세로 높아질 전망이다(국가통계포털 KOSIS, 장래인구추계).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72.9%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56.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국가통계포털 KOSIS,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높아지고, 유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 개인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 2) 사회문제 발생-노년부양비 발생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대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614만

---

2) 인구변동요인별(출생·사망·인구이동) 미래 수준을 각각 예측한 후, 추계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인구에 출생아수와 순이동자 수는 더하고, 사망자수는 빼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다음 해 인구를 산출해 나가는 인구추계 방법

3)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함



명(12.2%)에서 2040년에는 1,650만 명(32.3%)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가계동향조사, 2015). 이는 생산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율의 증가로 인해 국민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는 2013년 36.8명에서 2040년 77.0명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유소년)는 2013년 20.1명에서 2040년 19.8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에 따라 노령인구를 부양할 청년층의 감소는 각종 세급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가능인구 추계를 보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25~49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50~64세의 중고령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현재 25~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44.4%로 하락 할 것으로 예상 된다. 50~64세의 중고령층 비중은 2015년 29.5%에서 2050년 40.9%까지 급속히 오르게 될 것이다(김주은, 2012, p.9). 이처럼 젊은 세대가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은 노후비용의 과도한 지출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손실로 인해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 발생의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젊은 나이에 결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보장하여야 한다.

### 3) 경제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감소와 노동생산성저하 및 소비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율에 따르면, 19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1990년에는 경제성장율(9.8%)에서 2013년에는 (3.0%)로 15년 사이에 약 3배 가량 낮아졌다. 국가경제 잠재성장율에 따르면 GDP잠재성장율이 2030년에는 1.6%이고, 2040년에는 0.7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통계청, 지표세상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율).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애 가장 크게 작용하여 불황으로 인한 소비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억압 요인으로 내재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은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

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여성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출산의지

### 1. 출산의지의 개념

출산은 자녀를 낳는 행위를 말하며, 여성의 전체 인생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것을 뜻한다. 출산(childbirth)이란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장영남, 2012). 사전적 의미의 의도(intention)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며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의도는 계획(plan)된 미래 행동이나 신념이 행위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 자발적 행위의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가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소로 정의된다(이정원, 2007). 출산은 개인의 선택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사회 전체를 변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박현구(2013)는 출산의지를 추후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 동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학자들마다 출산의지에 대한 개념을 출산의지(한윤옥, 2011), 후속 출산의도(김선희, 2013), 출산의도(방영이, 2004)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출산 자체는 사회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요인으로 사회 구성원을 충원 시키고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이다. 출산은 개인의 가치, 신념 또는 가족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쉽게 좌우되고, 이러한 출산율 상승과 저하는 한 국가의 인구구조와 인구성장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주어진 사회의 생태학적 균형과 사회구조에 긴장감을 고조시킨다(이희연, 2003). 따라

서 출산의지를 사회·경제 및 정책에 의해 개인이 출산에 대해 갖는 욕구와 의지로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가 자녀를 갖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행위로 보고 출산의지를 연구의 주제로 하고 있다.

## 2. 출산의 요인

출산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가 존속해야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가는 개인이 모여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 국가가 되면서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강제적인 제도로서의 국가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생명력을 가지는 유기체로 파악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구성원들이 필요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를 ‘참된 나라’(alethinē polis) 내지 ‘건강한 나라’(hygiēs polis)로 일컬었으며(서울대학교, 2004), 출산은 국가 유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아야 하고, 개인문제가 아닌 국가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출산력(Fertility)이란 한 여성이 재생산할 수 있는 생애 동안에 태어난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출산력은 소득, 주거조건, 피임방법, 피임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산업화와 함께 특징적으로 감퇴한다. 그리고 정부의 견제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정부는 인위적 제한을 통해서 출산력을 통제함으로써 인구성장을 저지하고자 했고, 반면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은 더 높은 출산력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기관이나 정책기관이 출생 예측에 흥미를 갖는 것에는 최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래의 출산은 가족 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둘째, 미래 출산의 예측은 교육 투자 및 고용 등을 포함한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출산 예측은 미래 출산의 예보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듯 출생 예측은 기타 다른 현재의 행동들에 영향을 주거나 미래 출산 예측을 하지 않는다 해도 가족 구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Mary.

2008, p.39).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출산력의 결정인자들에 대해 듀젠베리(Duesenberry)는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회학자는 “사람들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왜 다른 선택권이 없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한다(배민환, 2007, 재인용). 인구 학자 관점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출산력 수준이 성별, 연령, 결혼지위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주장한다(이연주,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인구학적 접근 사이에는 유사점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통합하여 다루기로 했다.

출산율에 대해 결정짓는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결혼과 관련된 결혼 여부 및 시기와 결혼 후 출산은 개인의 의사 여부에 따라 변화하나, 그러한 의사결정에는 개인이나 가족 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저출산에서 예상되는 인과구조론적 체계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학적요인(유배우율, 유배우출산율)을 매개로 출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여성의 인구학적 요인을 배제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와 그 결과로서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를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최종적으로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접근은 인구학적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으며, 인구학적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로써 출생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와 평균 출생아수(children-ever born)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내용을 알 수 있다(이삼식, 2014, p.13).

사이먼(Simon)은 “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증가 하였으나,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소득증대에 따라 점차 감소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주장하였다. 이것은 출산율의 흐름이 경제발전 전기단계보다 후기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부터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권태환 외 3, 1997, 재인용).

그리고 슉츠(Schultz)의 주장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는 유아사망율에 따른 저하에서 기인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데이비드(Davis)는 인구변동과 대응이론(theoyt of change and response)에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재조정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최은영 외 4인, 2005). 이를 전제하에 인간의 평균수명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길어지면서 노후의 생활에 대해 대비하는 생활을 설계한다고 하였다. 생활방식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거나 가족규모 축소나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의 의무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과 각 사회에서는 출산율 저하 현상이 나타낸다고 강조하였다.

## 2) 경제적 요인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의 향상이 출산력을 상승시킨다는 최초의 이론은 Malthu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Malthus는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결혼을 빨리하게 되며 결혼한 사람은 금욕할 필요가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 하는 것이다(이홍택, 1985). 이와 같은 견해로 Becker(1976)는 자녀의 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서 소득, 비용, 기호에 의해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박숙자, 2003 재인용).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자선택 관점에서 볼 때 출산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내구소비재의 구매로 보고 자녀에 대한 수요를 구매의욕과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Blau와 Robins(1989)는 아동복지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비취업모의 증가는 출산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주당 보육료의 1달러 증가(약 4% 증가)는 출산 가능성을 2%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았다.

보육비용과 출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Lopoo(2001)의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자녀양육비용이 총 출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출산의 시기에 따라 영향이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자녀 보육서비스의 합리적 비용, 높은 수준의 질, 다양한 공급을 중요한 공공정책의 과제인 일환으로 만들었고 이에 정부는 자녀 양육의 보조금 지급과 세액 공제를 늘려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이용복, 2004, pp.19-20).

Steven(2000)는 일하는 여성의 고수입은 출산력에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개인의 더 높은 소득은 더 높은 자금력과 더 높은 개인의 생산성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이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피고용인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은 출산 시기에 최소한의 경력 손실을 받을 고학력의 고수입 여성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수입이 많은 여성이 출산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성이 수입이 높을수록 출산에 더 자유롭고 자녀 출산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반면 Leibenstein(1974)에 의하면 가구소득의 증가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 대체 효과는 기회비용 증대 효과로 보고 있다.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출산율 저하는 소득 효과를 자녀를 재화로 간주함으로 인한 출산율 상승을 지배하게 되어 출산 수준을 낮추게 된다고 하였다(마미정, 2008).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부모들은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대는 직장 생활의 불안과 경제 발전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려면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미래 직업까지 생각하면 자녀를 출산하여 잘 기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이 없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 배정 되어야 할 것이다.

### 3) 정책적 요인

한국은 1960년대 당시 높은 인구 증가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병행하여 정부 차원의 출산억제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기혼여성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직·간접적으로 출산력을 저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피임 실천율이 1960년대에는 10% 미만이었는데 1980년대는 70%이상 증가하여 결국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80년대 가족계획으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공익광고로 정부에서 자녀에 대한 출산율을 낮추는데 노력하였다(유소정, 2005). 정부의 피임 실천 노력으로 2001년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급락하기 시작하여 출산율 저하는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Castles(2003)은 21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적 공공정책과 출산 관계를 연구를 통하여 가족 친화적이라는 문화전통이 높은 국가와 출산율이 관련 있음을 밝혔다. 가족 친화적이라는 의미는 출산, 육아에 상관없이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의식 전환 및 수요자 맞춤형 보육시스템으로 전환, 정서적 돌봄과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은 안정된 고용, 추가 보수, 높은 보수 등을 말하며, 일상생활의 적절한 보살핌을 말한다(안병철, 2004 재인용). 미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에 대해 진행되는 직업 및 가족 정책에 일차적인 책임 보다는 세금코드와 아동복지정책 측면을 통해 개입한다는 사실은 다른 OECD 국가들과는 아주 대조되는 접근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책 형태는 직업과 출산 및 복지 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표준적인 역할이라는 관점에서의 명백히 다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Mary, 2008, pp.19-20).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결과 위의 세 가지 요인 중 정책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출산의지의 영향요인

#### 1) 가족적 요인

인구학자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출산력 수준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연령, 성별, 결혼지위, 주거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에 관련하여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이연주, 2008, p.4). 이러한



인구학적 입장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노후보장이나 가문의 계승과 같이 자녀출산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넓은 의미의 인구학 역시 가족지위, 결혼나이, 출생지, 집안들간의 관계 등과 같은 인구의 사회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수행자는 어디까지나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가족안에서 여성에 대한 역할인식은 전통적 관념에 그 기원을 둔 것이지만 여성들이 경제참여 활동으로 일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정내 가사분담이 여전히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주은, 2012). 비슷한 맥락으로 Rindfuss(1996)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여성 역할이 일과 가정에 대한 부담 즉 성역할의 불평등으로 인한 상호간의 갈등 관계에 놓일수록 출산율의 기대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이인순, 2011, p.31).

## 2) 가치관적 요인

과거 우리 사회는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정옥분 외, 2007). 삶의 주체가 자신이 되면서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서 기인하는 결혼관과 부부지위의 변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점차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출산율의 감소를 결혼연령의 상승에서 기인하는 요인과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에 의한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1959~1969년의 10년 사이에는 기혼여성의 출산율 저하의 90%를 설명했던 반면, 1979~1989년에는 69%로 저하하고 그 대신 결혼연령의 상승이라는 원인이 38%로 증가하였다(김승권 외, 2000).

결혼관은 사회적인 분위기나 개인적인 확고한 신념 등 여러 요소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이들의 결혼관이 변화하면서 30대 이상 50대 미만 미혼 여성 중에서 학력이 높고 사회적·경제적 여유



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 생겼다(방문주, 2010). 이런 계층은 자기 성취욕구가 높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층으로 결혼을 의무가 아닌 개인의 한 선택으로 인식하면서 개인적인 행복추구권에 가치를 두고 있다.

과거 고학력 여성의 비자발적인 독신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나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하였으나, 현대 여성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독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 한다는 점에서 가치관이 결혼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결혼관과 함께 자녀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자녀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꼭 있어야 했다면, 현재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큰 비중을 두면서 자녀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게 되었다.

### 3)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고찰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가치관, 사회, 경제, 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김도영(2008)은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 결혼 가치관과 소득, 자녀양육비용 경감측면정책에서 보육료 지원, 보육환경 개선정책에서 영아전담시설 확대 및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 조성정책에서 탄력근무제가 통계적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고, 성별, 학력, 방과후 과정운영,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광수(2010)는 보육서비스의 구성변인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인들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보육서비스 구성변인이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보육서비스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했다. 보육서비스 관련변인 중 월보육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보육료가 낮을수록 출산의도는 1.0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상승이 고령의 출산의 정신적·육체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으로 출산의도가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박우현(2011)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 지위 요인과 출산의지와 의 관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감이 크게 늘어날수록, 가사부담과 양육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구(2013)는 저출산 문제 인식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녀양육비용과 주택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정부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과 결혼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이 기혼여성과 직장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미혼여성과 남성들에게도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영애(2012)는 개인적요인인 결혼가치관과 자아성취욕구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경제적 요인인 생활수준과 취업·고용의 불안, 양육·교육비 부담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인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이 높을수록 탄력근무 여건 배려가 높을수록 보육서비스 지원이 많을수록 믿을 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영이(2010)는 자녀가치관과 성역할가치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강할수록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여자보다 남자가 출산의지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다고 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남성이 육아에 대해 분담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어 출산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배광일(2011)은 여성보다 남성이 출산의지가 높았고, 출산순위가 중간집단보다는 첫째(장남, 장녀, 독자)나 막내가, 원가족 형제 수가 5명 이상인 집단보다는 3명 이하인 집단이 더 출산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자녀수가 2명 이상 집단에서는 아내 연령, 원가족 형제 수, 믿고 맡길만한 보육장소가 있을수록 출산지원정책의 수혜경험이 많을수록 출산행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오현아(2013)는 무상보육확대에 의한 20대의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지는 감소했으며, 연령이 높으면 출산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연주(2008)는 출산장여정책의 연구에서 이상 자녀수보다 실제 자녀수가 적은 원인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정책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잘 모르는 대상자가 5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3개 이상 활용한 대상자는 24%에 그쳤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룹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는 다른 직업군보다 공무원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옥(2011)은 자녀로 인한 부부의 삶의 질을 제외하고 가치관 요인이 출산형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가치관의 변화로 자신의 삶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자아성취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을 적게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부부의 삶의 질에서 자녀가 부부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출산을 많이 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중에서 고용안정 정부정책 인지도와 믿을 만한 보육시설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근무환경 요인에서 탄력근무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형태(탄력적이고 유연한)에 따라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출산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용복(2004)은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전체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는 교사의 상호작용 반면 출산결정에는 영양·건강·안전, 학습 환경, 보육시설생활작용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보다 공적 요인인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비용의 상승은 기혼여성의 경제참가율을 상승시키고 출산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장석주(2012)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한윤옥(2011)의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출산의지와 관계모형을 보면 양육지원정책 중 하위변수인 24시간 연장 운영, 가족친화정책 모범 기업체 인센티브 제공, 가족친화 문화 확산 등은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자녀의 수와 가족친화 지역선정 변수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개인의 출산의지가 정책과 가치관 차이에 따라 출산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표 2-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2-1> 출산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저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분석방법
김도영 (2008)	자녀출산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특성(성별, 가치관, 소득, 학력)</li> <li>·자녀양육 비용경감정책(보육료지원, 방과 후 과정운영)</li> <li>·보육환경개선정책(공보육시설확대, 영아전담확대)</li> <li>·양성평등적 사회문화조성정책(탄력근무제도 도입, 육아휴직제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추출법</li> <li>·빈도분석</li> <li>·기술통계분석</li> <li>·독립표본T-검정</li> <li>·일원배치분산분석</li> <li>·다중회귀분석</li> </ul>
김광수 (2010)	출산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제변수-인구사회학적 변인(어머니연령, 어머니소득, 월가계소득, 주택소유 현황, 동거부모, 긴급도움여부, 결혼기간, 첫째자녀연령)</li> <li>·독립변수-보육서비스변인(근접성, 입소 시기, 보육비용, 물리적환경, 보육시설 생활적응, 영양·건강·안전, 학습환경, 교육내용, 교사의 상호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추출법</li> <li>·빈도분석</li> <li>·기술통계</li> <li>·교차분석</li> <li>·T-test,</li> <li>·ANOVA</li> <li>·로지스틱회귀분석</li> </ul>
박우현 (2011)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요인(경제적지위, 경제적부담, 경제상황)</li> <li>·사회적요인(사회적지위, 가사부담, 성불평등, 사회적분위기)</li> <li>·문화적요인(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가족가치관)</li> <li>·통제변수(성별, 연령, 출산자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추출법</li> <li>·상관분석, T검정</li> <li>·로지스틱회귀분석</li> </ul>
박현구 (2013)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변수-결혼가치관, 성역할인식, 자녀양육부담감, 일·가정양립에 대한인식, 출산장려정책에 대한인식,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저출산문제 인식, 조직의 출산친화적 분위기에 대한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도분석</li> <li>·신뢰도분석</li> <li>·요인분석, T-test</li> <li>·상관관계분석</li> <li>·다중회귀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도,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li> <li>· 통제변수-인구통계학적변수</li> </ul>	
박영애 (2012)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변수-개인적 요인(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위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li> <li>· 가족적 요인(가족역할분담,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li> <li>· 경제적 요인(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li> <li>· 정책적 요인(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 정책인지도, 출산정책 이용경험, 출산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li> <li>· 통제변수-인구통제학적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도분석</li> <li>· 기술통계분석</li> <li>· 교차분석</li> <li>· 분산분석</li> <li>· 상관관계분석</li> </ul>
방영이 (2010)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경제적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고용 안정성)</li> <li>· 가치관적 요인(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li> <li>· 정책적 요인(사회보험세제, 보육서비스지원, 출산의료비, 사회문화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도분석</li> <li>· 빈도분석</li> <li>· 분산분석</li> <li>· 독립표본 t검정</li> <li>· 상관관계분석</li> <li>· 다중회귀분석</li> </ul>
배광일 (2011)	출산의도 출산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유기체변인(사회인구학적특성),미시체계변인(가정환경변인), 가족구성원간의상호작용, 가족구성원간의관계만족도,외 체계변인(보육환경변인), 거시체계변인(가치관 및 정책변인), 출산지원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test</li> <li>· 일원배치분산분석</li> <li>· 위계적중다회귀 분석</li> <li>· 위계적로지스틱 회귀분석</li> </ul>
오현아 (2013)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변수-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 결혼기간, 학력)</li> <li>· 경제학적 특성(직업, 월평균소득, 맞벌이 여부)</li> <li>· 매개변수-무상보육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도분석</li> <li>· 카이스퀘어검증</li> <li>· 교차분석</li> </ul>
이연주	자녀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일반기업체, 은행원, 자영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도분석</li> </ul>

(2008)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통계학적요인(연령, 교육수준, 결혼연령)</li> <li>-사회경제적요인(가계소득, 자녀양육비, 일·가정의 양립 곤란)</li> <li>-가치관의 변화 요인(자녀에 대한 가치관, 성 역할태도, 일·가정선호도, 만족도, 이상자녀수)</li> <li>-출산장려정책(인지도, 제도이용, 홍보 선호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통계분석</li> <li>·독립표본 T검정</li> <li>·ANOVA</li> </ul>
이현옥 (2011)	자녀출산의 형태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경제적 배경(학력수준, 소득수준)</li> <li>·경제적(양육비, 주택비용, 일과 자녀의 양립, 출산 후 직장복귀)</li> <li>·가치관(자신의 삶에 투자, 무자녀 소신, 부부의 삶의 질, 자아성취욕구, 만혼영향)</li> <li>·사회적(여성의 사회적 지위, 고용안정, 정부시책인지, 믿을만한 보육시설)</li> <li>·근무환경(출산휴가, 탄력근무제)</li> <li>·정책지원(사회보험, 세제지원, 보육서비스지원, 출산의료지원, 친화적문화환경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귀분석</li> <li>·분산분석</li> <li>·요인분석</li> <li>·교차분석</li> </ul>
이용복 (2004)	출산(출산의도, 출산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변수-보육서비스 변인(근접성, 입소시기, 보육 시간, 보육비용, 교사대 아동 비율, 물리적 환경, 보육시설 생활 적응, 영양·건강·안전, 학습 환경, 교육 내용, 교사의 상호작용)</li> <li>·통계변수-인구학적 변인(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월 가계 소득, 주택소유 여부, 동거 부모, 긴급도움 여부, 결혼 기간, 첫째 자녀 연령, 첫째 자녀 성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도분석</li> <li>·델파이 방법</li> <li>·판별분석</li> <li>·로지스틱회귀분석</li> <li>·위계적 중회귀분석</li> </ul>
장석주 (2012)	출산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정책</li> <li>-보육료 지원정책</li> <li>-다문화보육료 전액지원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이스퀘어분석</li> <li>·분산분석</li> <li>·요인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정책</li> <li>-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확충정책</li> <li>-아이사랑카드정책</li> </ul>	·회귀분석
한윤옥 (2011)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지원정책(일·가정양립위한 맞춤형 보육지원,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수준, 양육친화환경 조성)</li> <li>·인구사회학적 요인(학력, 소득, 직업, 동거유무, 자녀상태, 주택소유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 통계기법</li> <li>·분산분석</li> <li>·요인분석</li> <li>·상관관계분석</li> <li>·회귀분석</li> </ul>

### 제 3 절 영유아보육정책

#### 1. 영유아보육정책의 개념

영유아보육은 영유아보육(nurture or babies and children)과 유아교육(child education)을 결합한 개념(educare)으로서, 취학 이전에 영유아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명칭여하를 불문)에의 위탁대상이 되는 아동들에 대한 제반 공공적 활동의 방침으로 정의된다. 기존의 영유아 보육은 주로 아동과 가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현상으로 국한되어 정의되어 왔다(강영옥, 2005).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의 제반(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이 법에서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영유아를 보호·양육함에 있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보육 이념에서 보육은 영유아를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



공되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되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4조)고 밝히며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보육정책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1961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 달라졌다.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영유아보육법, 2015).

## 2.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정

### 1)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1921~1991)

구빈을 바탕으로 1921년에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했다. 아동복리를 위해 1962~1981에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탁아를 관리하였고, 사회복지는 1982년에 유아교육 진흥법 제정으로 유아교육이 크게 강조되어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였다(보건복지백서). 직장탁아는 19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를 도입하였다. 직장탁아는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탁아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출산율이 높아지고 여성 취업률도 급증하면서 보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도시 저소득층 육아 및 농어촌 지역 육아의 방치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4328호)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후 새마을 유아원 등 탁아시설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육아지원 인프라는 양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민간 보육시설이 과도하게 늘어나다보니 보육의 질 저하,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보육의 수요자 중심 및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아동학대의 예방 강화,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의 보육지원, 국가의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3년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시행되었다. 제정 이래 지금까지 총 2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 2)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1991~2004년)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제반사항을 지원하였다.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였으며, 설치기준의 변천은 법제정 당시 1991년 1월에는 인가제(가정보육 시설만은 신고제)였으나, 1998년 7월에 신고제로 완화하고, 2004년 1월에 다시 인가제로 전환하였다(영유아보육법). 이에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설립주체, 비용 부담의 원칙, 서비스 기능과 시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토대가 구축되었다(강영욱, 2005).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직장이 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를 다원화하여 보육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호와 교육기능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명칭을 기존의 탁아에서 보육으로 변경하였다.

## 3)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2004~2008)

2004년 6월 보육업무부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하면서 조직을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과(1과)에서 1국(보육정책·재정·지원팀)로 개편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로 육아부담을 줄이고자 1년간 육아휴직을 포함하였다. 가족구조 변화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평가 인증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종전 신고

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강영욱, 2005).

제2차 육아지원정책은 2005년 5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을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여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 및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을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과 부모협동조합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로부터 분리되었다(변미순, 2010, p.22). 그리고 새싹플랜은 2006년 7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2006~2010을 발표하였다(박미경, 2014, p.28).

2008년 3월에 다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하면서 조직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으로 이관하였다. 2015년 국회본회의에서 영유아법 개정 통과 주요내용은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제한 강화 등이 있다(보육사업안내, 2015, p.96).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아동 학대, 불안한 안전 관리, 불균형적인 영양 등의 비행을 막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3. 저출산 보육정책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7명으로 유래 없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급격한 출산저하에 대비해 출산대책 중 하나인 제1차 새로마지플랜을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장영남(2012)은 직접지원 정책인 주택문제, 보육료 지원, 산전후 휴가 제도를 출산의지 약화가 되었다고 하였다. 김지원(2011)도 보육·교육비 지원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고 하였으며, 출산의지에 관련된 결과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세제지원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진(2011)은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이 각계각층의 찬반론이 분분하지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 환경과 보육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1) 제2차 새로마지플랜

출산율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제2차 새로마지플랜을 실시하여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보육 지원의 틀을 확립하고 0~2세 전 계층 아동의 보육료를 국가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2세 영아 가정에 보육 부담을 줄여주고 평생건강의 기본이 되는 건강관리체계 강화와 취업부모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급속한 보육 수요에 맞춰 국공립 수준의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확대하였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를 위해서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및 개선을 하였다. 저출산 대책은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및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 등이 핵심과제이다(김상진, 2011). 직장여성을 고려해 직장에서도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 하여 출산의지를 높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늘리는데만 시급한 나머지 내재되어 있는 여성의 가사부담이 줄지 않았고 여성의 역할인식 문제를 제고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령사회 대책은 정책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종전의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제2차 새로마지플랜 핵심과제는 <표2-2>이다.

<표 2-2> 제2차 새로마지플랜(2011~2015)

분야	핵심과제	세부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 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가족친화 직장·사회 환경 조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b>결혼·출산 ·양육 부담 경감</b>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이민·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다문화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내 공공형·자율형 보육시설 지속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충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계획, 2010, pp.8-12에서 요약정리

##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출산의지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2016~2020년) 수립 모색은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수립 필요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 2015, p.5). 1·2차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일·가정 양립의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국가책임 구현을 기본 계획으로 한다. 국공립 민간 시설 수와 보육료 재정 지원은 크게 진전이 있었으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경제 체질 개선이 미흡하고 출산을 반등에 실패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을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 인프라는 수요자 여건에 맞추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여 가치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대 후반 미혼여성 절반 이상이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했으며 만혼은 저출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결혼문화·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간 정부 정책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 대한 현상적 문제에 대처였다면 고용,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추진방향이 될 것이다. 만혼문제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저출산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제3차 새로마지플랜 기본 계획 추진 방향이 <표2-3>와 같다. <표2-4>은 제2차 기본 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의 차이점이다.

<표 2-3> 제3차 새로마지플랜 기본 계획 추진 방향(2016-2020)

해결 과제	핵심추진방향	세부내용
만혼추세 심화	결혼하기 좋은 여건 마련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원
낮은 맞벌이 출산율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	·맞춤형 안심보육확립 ·일·가정 균형 실천력 제고
포기되는 출생·양육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비용 보장성 강화 ·한부모 가구 양육기반 조성
생산인구 감소	일할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외국 우수인력 유치 강화
불안한 징수 사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	·1인1연금 체계 구축 ·노인 건강관리 체계 강화
성장 동력 약화	고령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바꿈	·보건의료 산업 ·투자 강화, 인구감소(다운사이징)대책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 5천만이 함께 마련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 pp.8-15)에서 요약정리

<표 2-4> 제2차 기본 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의 차이점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 백화점식 대책 정책목표, 표적화 미흡	⇒ 선택과 집중 만혼, 맞벌이 표적화
⇒ 현상적 문제 대처 보육·출산 지원 프로그램 중심	⇒ 구조적 문제 대응 고용·주거·교육 등
⇒ ‘제도 도입’ 중심 벤치마크를 통한 제도 도입에 치중	⇒ ‘실천·정착’에 중점 여건 조성 과 문화·형태 혁신
⇒ 좁은 시야의 고령사회대책 노인복지중심의 소극적 대책 부담·위기로 인식	⇒ 전방위적 고령사회대책 사회·경제 체질 개선 등 적극적 대 책 기회로 인식

출처: 보건복지부, 5천만이 함께 마련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 p.21)

## 4. 영유아보육정책의 주요내용

### 1) 보육비 지원

자녀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세금감면 혜택과 현금지원, 모성 및 부성휴가, 아동보육시설의 비용과 접근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금체계는 세금공제를 통해 유자녀 가족에게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정비용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출산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보육비 지원에 대한 출산율의 실증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제 근무비율이 높은 국가, 자녀 양육비용이 낮은 국가, 부모휴가가 긴 국가,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예산이 2009년 3조 5700억 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총 예산은 2010년 5조 6100억 원, 2011년 6조 59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07년 아동 1인당

정부의 공적 보육비용이 약 125만원에서 2011년에는 약 400만원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보건복지부, 2012).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2000년대 들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 하였다. 보육료지원이 2006년 4천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2조 59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9% 증가하였다. 2006년 340억 원에서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2012년부터 증가하여, 2013년 230억 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99% 증가하였다(박미경, 2014). 정부의 보육비 예산은 매년 증가하였지만 혜택 받는 아동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받는 혜택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힘들다고 보겠다.

## 2)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정부는 보육·교육비 지원 현황에서 핵심요인인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91년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1999년 만5세아 무상교육, 2005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010년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였지만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접근이 현실에 맞춰지지 않고 일부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상당수의 자녀 양육 가정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확대 한다. 2015년 달라진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0~2세 부모지원보육료 3% 인상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3% 인상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추진배경은 영아가구 양육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p.44).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출은 영유아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의 14.1%, 초등학교 이하 아동가구는 12.9%를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였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64.2%에 달하는 수준이다. 만0~2세, 만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에서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는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했다.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강화하였다(장석주, 2012).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질적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 3) 보육시설 확대

근본적인 보육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적합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확산을 적극 추진하였다. 복지부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어린이가 어떻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든지 확인할 수 있고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조성’을 보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선정하였다. 어린이집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모가 직접 보육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구축하였다.

시설개방성과 부모참여도가 높아 부모·어린이집 간 소통과 신뢰가 구축되는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열린 어린이집’이 보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어린이집 시설 확대는 전체 어린이집이 1995년 총 9,085개에서 2000년에는 19,276개이고 2014년에는 43,742개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법인·단체어린이집이 1995년 32개였던 곳이 2014년에는 852개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995년 1,029개에서 2014년 2,489개로 가장 적게 증가하였다. 2000년에 들어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신설 되었고, 직장어린이집이 1995년 87개에서 2014년 692개로 증가하였다(통계청,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2015). 지난 20년 동안 전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적게 증가하여 이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년씩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 4) 사회문화 조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제도적으로 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문화형성정책이다. 가족친화적인 정책으로 조직구성원이 책임과 의무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최성일, 2006). 특히 일·가



정양립의 취업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문화조성 배려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과정에 제공되는 어머니 육아휴직, 아버지 육아휴직 등이 있다. 어머니의 일·가정양립의 주요 지표는 유연근무, 정시 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자동 육아휴직, 직장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자녀양육의 책임을 가정에서 점점 사회 공동책임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녀양육문제가 개인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을 질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적으로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국가적인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5) 누리과정 제도 도입

저출산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되고 인구 구조도 변화면서 노동력 감소 및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2010년 만 5세 유아는 약 44만 명으로 이 중 약 9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교육 및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누리과정해설집, 2015). 계층 간의 차이로 저소득층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었으며, 고소득층은 고가의 영어학원이나 특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아가 교육 및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최근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사교육과 보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 부담 비율은 79.7%이고, 미국 77.8%, 영국 86.1%, 핀란드 90.6%, 프랑스 94.0%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OECD 평균 이상이다(보건복지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추진 계획, p.3).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 부담 비율은 49.7%로 OECD 평균의 62%에 그치고 있으므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국가의 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정부에서는 만 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었으며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선진화로 실현되게 된 것이다(누리과정 해설집, 2015).

누리과정제도의 의의는 만 3~5세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보육·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했다. 정부는 유아를 미래에 대한 인적 자원 투자로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유아의 출발선상 공정 기회 보장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국가가 책임을 강화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교육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에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 자율성과 창의성 및 바른 인성을 기르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적용하였다. 보육·교육비용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5세아 및 만 3~4세아 전계층으로 확대했다. 어린이집에 만3~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부모에 대해 보육비 및 유치원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보육정책, 2015).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만 3~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였으며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였다.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였다.

누리과정의 기대효과는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일석사조(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의 효과와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더불어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이다.

## 6)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2015년 보육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및 영유아의 실

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야한다. 빠른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생활 보장 및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규정을 두었다(보육사업안내, 2015, pp.94-95). 둘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이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의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이다(보육사업안내, 2015, p.127). 보육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 직무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부모 참여 보장, 비용신청의 고지, 양육수당 지급 제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 부모 역할이 출산이 시작으로 본다면 출산 이후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는 사회에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출산 시점과 가장 가까운 영유아보육정책을 연구 주제로 하였다.

## 제 4 절 외국의 출산관련 보육정책의 동향

### 1. 스웨덴

1985년 이후 베이비붐을 겪으면서 합계 출산율이 1990년 2.14명까지 오르고, 다시 1999년 1.52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가, 경기순환과 맞물려 2008년에는 1.91명으로 다시 꾸준히 오르고 있다(통계청, 합계출산율 OECD).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출산율 하락은 셋째와 넷째의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 것이었다. 1990년대 출산율 하락의 유일한 예외가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진 여성이었다(OECD 주요국 저출산정책, 2005). 2015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2명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맞벌이 가족 모형을 채택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불황기에는 경기둔화 및 여성의 실직 등 가계 부담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반면, 호황기에는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였다 .

스웨덴은 국공립과 시설보조금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보육비용은 정부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경우 총 소득과 시설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월 1,260크로나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Sverige sweden, 2014).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전체의 약 75%가 국·공립시설이다. 사립시설의 대부분은 비영리기관으로 복지의 책임을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혼에 상관없이 사회가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9).

스웨덴의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첫째아부터 16세 미만까지 지급하였으며, 부모의 소득제한이 없다(이강재, 2010).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 까지 점차적으로 아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늘어나며 다자녀 가산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타수당으로는 주택수당, 교육비지원제도, 장애아 간호수당 등이 있다.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법률명이 국민보험법, 부모보험제도로 정하고 있다. 1962년에 시행되었으며, 동일 고용자 하에서 과거 6개월간 근속 혹은 지난 2년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사용기간은 480일(8세 생일 혹은 초등학교 1학년 종료 시까지)이며, 다태아의 경우 180일 추가 된다(신효영, 2009).

보육 현황은 영아의 보육시설에서 학령기 이전에는 유치원, 개방형유치원이 있으며, 학령기 아동은 방과 후 센터, 공개형 방과 후 서비스가 있다. 영아의 가정 보육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한다. 보육보호 관리는 스웨덴 의회 및 정부가 교과 과정 및 운영지침을 정하면 지자체에서 규정 내에서 시행한다. 스웨덴이 어머니 들은 76%가 직장 생활을 하므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동육아시설에 다니게 되고 출산, 보육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을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Sleeboos, 2003; 최윤정 재인용, 2010). 스웨덴의 보육현황 이용료는 지자체 및 부모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수요자 측면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2.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프랑스는 1970년 합계출산율 2.48이었으나, 1995년 1.71명으로 낮아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합계출산율이 2.02명이 되었다(이강재, 2010). 프랑스는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사회적 환경조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으로는 부모들의 선택권 보장과 다양한 수당 제도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들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보편적 보육서비스 지원은 포괄적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수당이 출산으로 인한 임금의 대가로 지원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대부분은 국공립 시설이며 유치원은 무상으로 3~5세 대부분은 보육학교에 입학한다(이삼식 외, 2009, p.50).

프랑스의 주요정책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이다. 부모의 소득제한이 없이 둘째아 부터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자녀의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2자녀와 3자녀 이상은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기타수당으로는 가족보조수당, 가족지원수당, 한부모 수당, 출산·양자수당, 기초수당, 취업선택 보조수당, 보육선택 보조수당, 특별교육수당, 간호일액수당, 신학기수당, 가족주택수당 등이 있다(신윤정, 2013, p.63).

프랑스의 일·가정 양립제도(육아휴직제도)는 사회보장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1977년에 시행되었으며 자격조건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이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원칙적으로 1년이나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강정식, 2005). 시간제 사용을 위해서는 주당 16시간 이상은 반드시 근무(16시간 미만인 경우는 시간제로 인정되지 않아 전일제 휴직만 사용가능)해야 하며, 1년 내 2회 가능하다. 첫째아는 6개월간, 둘째아 이상은 3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배우자 휴가는 11일의 유급휴가이며 쌍둥이 경우 18일 가능하다. 가족 간호 휴가제는 1세 미만 혹은 16세 미만 아동이 3인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병아간호휴가제도 이용 가능하다(신윤정, 2013, p.64).

프랑스의 영아의 시설 교육은 공동보육시설(Creches), 유치원(ecoles maternelles), 유아원 등이 있다. 영아의 가정보육은 보육사, 파트타임 보육(halte-garderies)가 있다. 보육보호 관리의 자치체가 정비, 육성 한다. 수급 현황은 보육학교는 2세 아동이 42.2%, 3세 아동은 100%이다. 3개월부터 3세 미만인 아이들은 '시키라'라고 불리는 공동육아시설에서 보육한다. 시크라는 공사립 모두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덜 된다(윤용주, 2012).

이용료는 시설형 보육과 가정형 보육은 모두 유료이지만,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므로, 가구에 따라 보육비용 부담이 다르다. 유치원의 경우 아동 1인당 교육비는 4676 유로이나 2452 유로를 중앙정부로부터, 1973유로를 지방 정부에서 지원받아 나머지 급식료와 민간시설비용만 부모가 부담한다(이순월, 2011). 프랑스는 출산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 2014년 현재도 합계출산율이 1.98명으로 높은 편이다. 가족정책은 보편적인 가족수당에서 선별적인 수당지원으로 가족구성원들 개별적인 지원으로 가족과 고용 등의 변화에 조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종일제 보육시설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며 보육사 이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 등 보육서비스는 취업부모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 3. 독일

유럽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아동에게 주는 혜택이 높은 반면 정부에서 가족지원정책을 늦게 시작한 나라이다. 보육기관 대부분이 비영리 기관이지만 1995년 합계출산율 1.30으로 최저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1.42명으로 약간 올랐다(통계청, 합계출산율 OECD).

독일의 주요 수당은 아동혜택(Child benefit)이며, 첫째아 부터 18세미만 이며 부모의 소득제한이 없다.. 기타수당은 아동부양공제, 주거 관련 급부가 있다. 독일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취업모보호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시행연도는 2002년이며, 3년(3세 이하 자녀) 및 마지막 1년은 8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수준은 휴직기간 중 육아수당으로서 기존 월급의 67%를 12개월까지 지급(월 최대 1,800유로)된다. 배우자 휴가는 2개월 가능하고 부모 동시 사용 가능하다. 가족 간호 휴가제는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아간호휴가제도(사회법전)를 통해 질병 수당금 지급이 된다(조성혜, p.85).

독일의 영아의 시설 보육은 1990년 동서독의 통합된 교육으로 보육시설(creches), 유치원, 부모보육센터 등이 있다(신효영, 2009). 영아의 가정 보육은 베이비시터가 지원되며, 보육보모 관리는 주정부의 별도 규정이 없고 주에 따라 개별 보육자 이용에 대한 보조제도가 있다. 이용료는 다수의 보육시설이 비영리

기관이어서 일정정도의 비용을 자체 충당하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므로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비용은 가구소득의 최소 비용으로 한다. 독일은 가부장적인 사회 환경으로 남성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핵가족 가구 내 유일한 생계부양자이다. 독일이 2007년 육아휴직급여를 폐지하고 부모휴직급여를 도입한 목적은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임금손실을 적게 하여 출산율이 낮은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 4. 일본

일본은 1970년 합계출산율이 2.02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5년 1.48명으로 급격히 낮아졌다(통계청, 합계출산율 OECD). 일본의 자녀양육은 일차적 책임은 가족과 보호자에게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이 높아서 남편의 가사 분담이 매우 낮다. 여성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정책을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간에 평등한 육아 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사교육비 및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로 등 저출산에 대한 관점이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의 취업여성에게 국한되었던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이 자녀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합계출산율 1.66명 쇼크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년 계획으로 「Angel plan (1995~1999)과 신Angel plan (2000~2004)」을 계획하였다(방영이, 2007). 그러나 출산율이 회복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자녀양육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보호자에게 있다는 기본이념에 근거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주요수당은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이고, 첫째아 부터 초등학교수료까지 지원하며 부모의 소득제한이 있다. 3세 미만에게는 1만엔. 첫째·둘째아는 5,000엔, 셋째아는 1만엔(비과세)을 매월 지급한다. 기타수당으로는 아동부양수당, 특별수당, 부양수당 등이 있다. 법률명은 육아·개호휴업법으로 정하였으며, 1992년(2002년 개정)에 시행되었다(배진희, 2011, p.45). 자격조건은 1년 이상 연속근



무 하고 자녀가 1세가 된 후에도 고용이 지속되는 자이다. 2005년 일본의 총인구 감소로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6년의 인구정책 중심의 근본적인 새로운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력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에 참여를 촉진하고 결혼, 육아,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되 급속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정책의 기초를 변화하였다(신윤정, 2009, p.113).

보호자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 기초한다. 보육시설을 다양한 형태를 설치하고 있으나 보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 보육료 부담으로 인한 비판을 받고 있다. 영아의 보육시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나누어진다. 영아의 가정 보육은 가정방문서비스가 있으며 생후 4개월까지의 아동이 대상이다. 보육보모관리는 아동복지법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자체에서 가정방문사, 인재 발굴 및 연수를 실시한다. 보육시설 중 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6.67%, 사립이 53.33%로 사립이 6.67% 많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공립보육시설이 매우 높은 편이다(이삼식 외, 2009). 수급현황은 3세 미만 28.3%, 3세에서 5세까지는 87.6%(2006년 기준)이다. 이용료는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1/2는 국가가, 1/2를 부모부담 보육료로 징수한다. 보호자 부담부분은 가구의 소득별로 계층화하여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별도의 예산으로 부모소득별 차등 지원하고 있다(이강재, 2010). 일본은 취업 여성의 직장과 가정에 지장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유도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보육 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또한 보육지원의 대상도 전업주부와 취업모에게 모두 평등하게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 5.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외국의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1990년 들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성역할 분업이 강조되던 시대에 남성은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의 책임이 강한 문화권이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남아존중사상이 매우 강하였던 지난 시대의 잔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졌음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취업여성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출산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족정책에 따른 가족수당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시행한 가정양육수당이 보육원 종일반 수당 보다 낮은 것을 감안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손해 본다는 인식이 크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의 경우 부모의 소득제한 없이 둘째아 부터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둘째아를 출산하여도 양육비에 대한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은 적정수준의 자녀양육수당을 받으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모에 맞는 보육지원에서는 다양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제도를 가장 빨리 시행하였으며 가족간호 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지원수준이 다양하다. 자녀양육에 대한 주변 도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결국 국가적 대응노력에는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탄력적 근무제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점차 사회적 책임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양육친화 문화조성과 관련된 복지환경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프랑스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가장 먼저 세운 나라 중 하나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혼외 출산율이 높으며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허용하여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확산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법률혼과 법적 지위를 국가가 보장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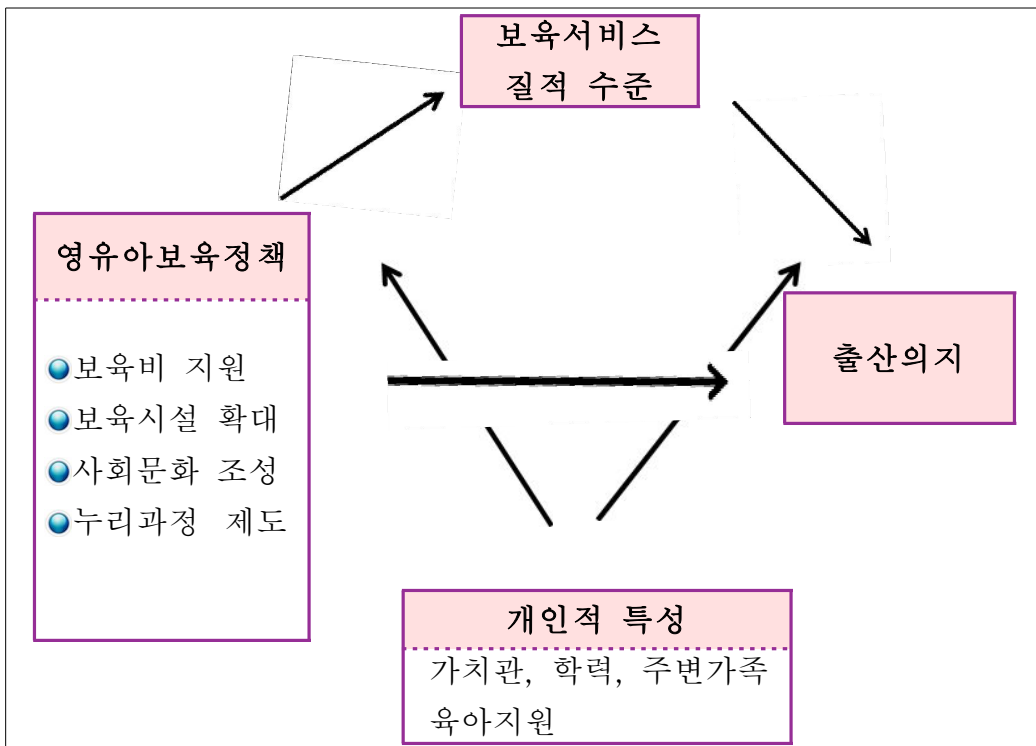
넷째,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이 일관성이 필요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정적인 투입이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정책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단기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 제 3 장 연구설계

###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정책 중에서도 아동의 조기교육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유아 보육정책을 독립변수로 정하고, 종속변수를 출산의지로 정하여 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조절변수로 하였으며,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그림3-1]은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형이다.



[그림 3-1] 연구모형

##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시행중인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녀 출산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 영유아보육정책은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나. 출산의지에 대한 영유아보육정책의 효과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다.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매개 효과가 있는가?

### <가설 1>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보육비 지원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1-2. 보육시설 확대가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1-3. 사회문화 조성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1-4. 누리과정 제도가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가설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영유아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보육비 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보육시설 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사회문화 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누리과정 제도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자녀

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 (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영유아보육 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5-1. 자녀출산은 보육비 지원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5-2. 자녀출산은 보육시설 확대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5-3. 자녀출산은 사회문화 조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5-4. 자녀출산은 누리과정 제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제 2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 1. 출산의지

출산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출산의 특수성은 여성의 한정된 연령층(15~49세)에서만 발생 된다. 자녀는 세대 계승과 향후 생산 활동자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 출산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즉 출산은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의도가 먼저 생성되어야 한다. 출산의지는 결혼에 이어 향후 자녀의 임신, 출산 가능성에 관한 욕구 및 의사 생각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출산을 높이려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출산의지에 대한 인식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된다. 출

산의지는 자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출산 원함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792$ 으로 나타났다.

## 2. 영유아보육정책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영유아보육정책이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정책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영유아보육정책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의 지원과 보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향후 출산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1) 보육비 지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경제적 부담이다. 최근에는 양육비 지원과 교육비 지원이 만 5세까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공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손승영(2005)의 연구에서 신혼초기 부부 모두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과 비용감당이 어렵고 불안하여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양육부담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한윤옥, 2011 재인용). 보육비 지원에 대한 인식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된다. 보육비 지원은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비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무상보육제도로 인해 경제적 부이 완화되었는지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621$ 으로 나타났다.

## 2) 보육시설 확대

선진국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보육시설의 3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전국의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1.8%에 달하는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3%에 불과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대될 경우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인식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된다. 보육시설 확대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641$ 으로 나타났다.

## 3) 사회문화 조성

영유아보육정책에 따른 사회문화 조성이 직장생활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정책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양성평등 정책에 놓일 때 출산율과 여성고용은 밀접한 영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일·가정 양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애 주기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 받아 경력유지가 가능하도록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된다. 사회문화 조성은 양육, 육아휴직제도, 직장 생활 전념, 직장 동료들의 눈치, 부부갈등, 직장생활 지속, 경제적부담 완화, 자아실현, 취미활동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868$ 으로 나타났다.

## 4) 누리과정 제도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및 보육과정 정책이다. 2012년 3

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 했으며 2013년 3~4세까지 확대 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 22만원과 방과 후 활동비 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통합한 내용을 배우게 하는 정책이다. 누리과정 제도는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가족의 육아지원에 도움, 연령확대에 대한 인식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744으로 나타났다.

### 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교육과 시설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학부모의 욕구에 맞도록 반영되는 정책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높아지고 보육에 대한 인식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보육시설과 근접성을 높이고 평가인증을 통하여 검증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다(한윤옥, 2011).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보육시설의 수준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보육의 공공성,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척도 개발, 평가인증제도, 육아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양성교육, 부모참여 모니터링,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및 교구보급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919으로 나타났다.

### 4. 설문지 구성

본 연구수행을 위한 사용한 설문지는 한윤옥(2011)이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구성은 출산의지에 관한 질문 5문항, 자녀 가치관에 관한 질문 7문항, 보육비 지원에 관한 질문 6문항, 보육시설 확대에 관한

질문 4문항,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수준에 관한 질문 7문항, 사회문화 조성에 관한 질문 9문항, 누리과정에 관한 질문 3문항, 인구학적 특성 10문항으로 총 5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 구성 및 질문내용

구분		설문내용	문항수
독립 변수 및 조절 변수, 매개 변수	자녀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li> <li>-자녀가 세대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li> <li>-자녀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li> <li>-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li> <li>-자녀가 내 삶의 최우선</li> <li>-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녀 적을수록 좋다</li> <li>-자녀는 나의 삶과 별개</li> </ul>	7
	보육 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정부 보육비 지원에 대해 만족</li> <li>-보육료·유아학비에 대해</li> <li>-무상보육제도로 인해 경제적 부담 완화</li> <li>-무상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 서비스질</li> <li>-출산장려 비용 부담</li> <li>-보육비 외의 추가 금액(현장학습비, 재료비, 간식비, 특별활동비)</li> </ul>	6
	보육 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li> <li>-사회복지어린이집의 확대</li> <li>-민간어린이집의 확대</li> <li>-직장어린이집의 확대</li> </ul>	4
	보육서 비스 질적 제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서비스수준 향상</li> <li>-보육개발원 설치로 프로그램 및 평가척도 개발 향상</li> <li>-평가인증 제도 확대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수준 향상</li> <li>-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영아·장애아 보육서비스 향상</li> <li>-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양성교육은 교직원 질</li> </ul>	7



		적 향상 -부모참여 모니터링은 열린어린이집 여건 조성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및 교구보급으로 보육환경 향상	
	<b>사회 문화 조성</b>	-양육에 대한 사회문화 조성 -우리나라 육아 제도 -자녀를 맡긴 후 직장생활 전념 -직장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부부갈등 해소 -직장생활 지속 -경제적 부담 -자아실현 -취미활동	9
	<b>누리과정 제도</b>	-현 누리과정제도 인지 -누리과정지원이 가족의 육아 지원에 도움 -현 누리과정지원 어린이 연령 확대	3
	<b>개인적 특성</b>	-연령 -성별 -맞벌이 -최종 학력 -결혼 상태 -주택 현황 -직업 -가족 평균 소득 -주변 가족 지원 -주변가족지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10
<b>종속 변수</b>	<b>출산 의지</b>	-자녀 출산의 당연성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나라 출산율 -출산의지 -출산 원하면 몇 명 정도	5

## 제 4장 연구의 실증적 분석

### 제 1 절 연구의 방법

#### 1.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7월 31부터 8월 15일 까지 약 2주일 동안 배부 및 회수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하여 215부를 회수하였고, 회수 설문지중 응답에 불충분한 7부의 자료를 제외한 20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하나인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 2. 표본의 개인적 특성

표본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별로 20~25세는 7명(3.4%), 26~30세는 46명(22.1%), 31~35세는 76명(36.5%), 36~40세는 56명(26.9%), 41세 이상은 23명(11.1%)로 조사대상자 중 31~40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하는 여성이 117명(56.3%)이고, 맞벌이 하지 않는 여성이 91명(43.8%)으로 맞벌이 여성이 26명(12.5%) 더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02명(49.0%), 전문대 졸업이 63명(30.3%)이었으며 대학교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99명(95.7%), 사별이 1명(5%), 별거 3명(1.4%), 이혼이 5명(2.4%)이다. 주택은 자가 78명(37.5%), 전세가 58명(27.9%), 월세가 35명(16.8%)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56명(26.9%), 사무직 54명(26.0%), 기타가 38명(18.3%) 순으로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50~300만 원이 111명(53.4%), 300~450만 원이 60명(28.8%), 600만 원 이상이 6명(2.9%)으로 고소득 가정도 있었으며 비교적 안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가족이 지원하지 않는 가족이 128명(61.5%), 지원하는 가족이 80명(38.5%)으로 주변가족 지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가정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가족 지원은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4-1> 표본의 개인적 특성

	변수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25세	7	3.4
	26~30세	46	22.1
	31~35세	76	36.5
	36~40세	56	26.9
	41세 이상	23	11.1
성별	남자	0	0
	여자	208	100
맞벌이	예	117	56.3
	아니오	91	43.8
학력	중졸이하	1	5
	고졸	32	15.4
	전문대졸	63	30.3
	대학 졸	102	49.0
	대학원 이상	10	4.8
결혼상태	미혼	0	0
	기혼	199	95.7
	사별	1	5
	별거	3	1.4
	이혼	5	2.4
주택	자가	78	37.5
	전세	58	27.9
	월세	35	16.8
	부모님과 동거	21	10.1
	기타	1	7.7
직업	전문직(교수, 의사, 예술가 등)	32	15.4

	사무직	54	26.0
	기술 및 생산직	18	8.7
	사업	10	4.8
	전업주부	56	26.9
	기타	38	18.3
평균소득	150미만	17	8.2
	150~300만원	111	53.4
	300~450만원	60	28.8
	450~600만원	14	6.7
	600만원 이상	6	2.9
주변가족 지원	예	80	38.5
	아니오	128	61.5

## 제 2 절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설문지의 응답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둘째, 응답된 설문문항에 대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각 항목에 대해 신뢰도 분석(credi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 각 요인들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1. 타당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공분산, 상관관계)이 높은 것끼리 묶어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재된 요인을 추출하여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는 기법이다. 즉, 요인분석은 일부항목을 제거하고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동질적인 요인으로 묶어주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척도 순환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고,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직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0.5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요인적재치 0.5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항목만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잘못 적재되어 있는 문항들을 제거하여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측정하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총 7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회귀분석에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설문문항들을 제외시켰고, 서비스의 질에 7개 문항, 사회문화조성에 6개 문항, 자녀가치관에 5개 문항, 출산의지에 3개 문항, 보육시설확대에 2개 문항, 누리과정도입에 2개 문항, 보육비지원에 2개 문항 등 총 27개 문항으로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수별 요인 값은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났고, KMO(Kaiser-Meyer-Olkin)는 .865  $X^2$  값은 2797.762 유의확률은 .000으로 타당성이 있어 분석에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2> 요인행렬표

	성분						
	서비스 의 질	사회문 화 조성	자녀 가치관	출산 의지	보육시 설 확대	누리과 정 제도	보육비 지원
질4	.833	.160	.024	-.016	-.014	.082	.011
질7	.818	.152	.063	-.015	.128	.106	.071
질5	.799	.120	.119	.055	.112	-.019	.149

질2	<b>.784</b>	.120	.119	.020	.110	.203	.116
질6	<b>.761</b>	.242	.036	-.056	-.020	.027	.101
질1	<b>.760</b>	.159	-.023	.024	.185	.069	.058
질3	<b>.757</b>	.272	.088	.107	-.093	.115	.126
문화4	.109	<b>.822</b>	.137	-.070	-.008	.145	.072
문화3	.208	<b>.776</b>	.062	-.082	-.081	.050	.004
문화5	.250	<b>.736</b>	.098	-.042	.069	.067	.005
문화7	.125	<b>.735</b>	-.028	.046	.071	-.002	.115
문화8	.140	<b>.704</b>	-.199	.073	.030	.085	.096
문화6	.263	<b>.692</b>	-.023	.150	.078	.076	.219
가치1	.107	.054	<b>.777</b>	.189	-.114	.120	-.140
가치2	.193	.046	<b>.762</b>	.124	.033	.071	-.184
가치4	-.030	-.050	<b>.754</b>	.189	.035	-.084	.122
가치5	-.057	.019	<b>.719</b>	.087	.112	-.119	.174
가치3	.174	-.010	<b>.701</b>	.238	.156	.114	.048
출산2	-.053	-.023	.284	<b>.848</b>	.061	.058	.038
출산1	-.034	.073	.231	<b>.845</b>	-.028	.097	-.110
출산4	.147	-.018	.270	<b>.657</b>	.174	-.066	.075
확대4	.065	.108	.080	.113	<b>.877</b>	.088	-.018
확대1	.195	-.014	.090	.050	<b>.836</b>	.153	.101
누리1	.168	.158	-.031	.079	.105	<b>.870</b>	-.003
누리2	.255	.187	.092	.005	.198	<b>.739</b>	.283
보육1	.246	.219	-.014	-.103	-.026	-.004	<b>.760</b>
보육3	.225	.191	.057	.112	.126	.243	<b>.758</b>
<b>고유값</b>	4.923	3.741	3.111	2.125	1.729	1.584	1.509
<b>분산비율</b>	18.234	13.855	11.524	7.871	6.403	5.867	5.590
<b>누적비율</b>	18.234	32.089	43.613	51.484	57.887	63.754	69.344

KMO (Kaiser-Meyer-Olkin) : .865 X<sup>2</sup> : 2797.762 유의확률 : .000

## 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이 끝난 후에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순서에 따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다. 신뢰성(reliability)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응답자로부터 일관된 응답이 측정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정변수는 제거되어야 하며, 신뢰성의 측정은 알파계수법에 의한 크론바알파(Cronbach's alpha)계수법이 사용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알파 계수 수용기준치는  $\alpha=0.6$  이상이면 측정문항들이 신뢰할 수 있어 사용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출산의지의 크론바알파값이 .660로 나타났고 자녀가치관,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사회문화 조성, 누리과정 제도 등 27개 문항의 모든 변수에서 크론바알파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 측정을 위한 문항들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 신뢰도 분석

변수명	항목수	Cronbach 알파
보육서비스의 질	7	.601
사회문화 조성	6	.630
자녀가치관	5	.652
출산의지	3	.660
보육시설확대	2	.641
누리과정 제도	2	.607
보육비 지원	2	.627

## 제 3 절 기술통계

### 1.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와 독립변수인 보육비 지원, 사회문화 조성, 누리과정 제도 도입, 매개변수인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조절변수인 자녀가치관과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변가족지원 등을 객관적 평가를 위해 각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기혼여성의 출산의지 인식이 3.8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보육시설 확대 3.77, 자녀가치관 3.31 순으로 나왔다. 설문 대상자가 현재 자녀를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므로 출산의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4-4> 기술통계량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보육비지원	208	1.00	4.50	2.8365	.82515
보육시설확대	208	1.00	5.00	3.7716	.94640
문화조성	208	1.00	4.67	2.8534	.71278
누리과정	208	1.00	5.00	3.1034	.75830
영유아보육정책	208	1.00	4.54	3.1412	.55252
보육서비스의 질	208	1.00	5.00	3.1738	.69016
출산의지	208	1.00	5.00	3.8189	.83006
자녀가치관	208	1.00	5.00	3.3106	.82209
학력	208	1.00	5.00	3.42	.825
지원	208	1.00	2.00	1.62	.488



유효수 (목록별)	208				
-----------	-----	--	--	--	--

## 2. 변수의 특성별 차이분석

### 1) 출산의지의 특성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변가족 지원 등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변가족 지원 등 5가지 요인과 출산의지를 집단적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주변가족 지원에서  $f=6.347$ ,  $p=.013$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주변가족 지원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가족의 도움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표 4-5> 출산의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	P
연령	20~25세	7	3.3333	.69389	1.333	.259
	26~30세	46	3.6739	.68309		
	31~35세	76	3.8947	.73275		
	36~40세	56	3.9167	.82938		
	41세 이상	23	3.7681	1.29660		
학력	중졸이하	1	4.0000	.	1.952	.103
	고졸	32	3.5417	.96813		
	전문대졸	63	3.9259	.75121		
	대학 졸	102	3.7941	.51640		
	대학원 이상	10	4.2667	.51640		
직업	전문직	32	4.0833	.73324	.902	.480
	사무직	54	3.8272	.80549		
	기술 및 생산직	18	3.7037	.83148		
	사업	10	3.7333	.73367		

	전업주부	56	3.7917	.93541		
	기타	38	3.7018	.80086		
소득	150만원 미만	17	3.7647	.90342	1.136	.341
	150~300만원	111	3.7297	.88251		
	300~450만원	60	3.9611	.66974		
	450~600만원	14	3.8095	.89361		
	600만원 이상	6	4.2222	.88611		
주변가족지원	예	80	4.0000	.73872	6.347	.013*
	아니오	128	3.7057	.86602		

\* : p<0,05, \*\* : p<0.01, \*\*\* : p<0.001 유의확률임

## 2) T 검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맞벌이와 주변가족 지원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이란 독립된 집단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맞벌이와 주변가족 지원이 유의확률 .000으로 모두 매우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맞벌이·주변가족육아지원 T검정

	합계(명)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쪽)
맞벌이	208	예	117	3.8632	.80605	.07452	41.691	.000***
		아니오	91	3.7619	.86107	.09026		
주변가족지원	208	예	80	4.0000	.73872	.08259	47.772	.000***
		아니오	128	3.7057	.86602	.07655		

p<0,05, \*\* : p<0.01, \*\*\* : p<0.001 유의확률임

### 3) 자녀가치의 집단간 차이 분석

자녀가치관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적 차이 분석 결과 전 항목에 걸쳐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자녀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며 자녀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표 4-7> 자녀가치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	P
연령	20~25세	7	3.2857	.67188	.212	.932
	26~30세	46	3.2696	.80357		
	31~35세	76	3.3526	.84087		
	36~40세	56	3.2536	.81038		
	41세 이상	23	3.4000	.91453		
학력	중졸이하	1	2.4000	.	.733	.570
	고졸	32	3.3188	.81258		
	전문대졸	63	3.4190	.82518		
	대학 졸	102	3.2471	.80305		
	대학원 이상	10	3.3400	1.05851		
직업	전문직	32	3.3938	.93323	1.526	.183
	사무직	54	3.4519	.75053		
	기술 및 생산직	18	3.3556	.80748		
	사업	10	2.8800	.80664		
	전업주부	56	3.3393	.81880		
	기타	38	3.0895	.80766		
소득	150만원 미만	17	3.4353	.97590	1.246	.293
	150~300만원	111	3.3189	.83579		
	300~450만원	60	3.3367	.09678		
	450~600만원	14	3.2857	.25567		
	600만원 이상	6	2.6000	.45314		
주변 가족 지원	예	80	3.4200	.81169	2.318	.129
	아니오	128	3.2422	.82430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유의확률임

### 4) 보육비 지원의 집단간 차이 분석

보육비 지원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적 차이 분석 결과 전 항목에 걸쳐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8> 보육비 지원의 개인적 특성간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	P
연령	20~25세	7	2.9286	.97590	.794	.530
	26~30세	46	2.6522	.83579		
	31~35세	76	2.8553	.79923		
	36~40세	56	2.9196	.86222		
	41세 이상	23	2.9130	.76355		
학력	중졸이하	1	2.5000	.	.393	.814
	고졸	32	2.8906	.83988		
	전문대졸	63	2.8254	.86210		
	대학 졸	102	2.8578	.76552		
	대학원 이상	10	2.5500	1.18907		
직업	전문직	32	2.6406	.94386	1.217	.302
	사무직	54	3.0370	.77003		
	기술 및 생산직	18	2.9444	.76483		
	사업	10	2.7500	.97895		
	전업주부	56	2.8036	.76085		
	기타	38	2.7368	.86005		
소득	150만원 미만	17	2.5294	.89216	1.125	.346
	150~300만원	111	2.8378	.78091		
	300~450만원	60	2.9583	.74385		
	450~600만원	14	2.9167	1.11680		
	600만원 이상	6	2.9167	1.35708		
주변 가족 지원	예	80	2.8063	.85126	.174	.677
	아니오	128	2.8555	.81122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유의확률임

### 5) 보육시설 확대의 집단간 차이분석

보육시설 확대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적 차이 분석 결과는 소득에서  $f=3.291$ ,  $p=.012$  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표 4-9> 보육시설 확대의 개인적 특성간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	P
연령	20~25세	7	4.0714	.67259	1.436	.223
	26~30세	46	3.6413	1.06282		
	31~35세	76	3.8421	.87258		
	36~40세	56	3.7321	1.00437		
	41세 이상	23	3.8043	.88855		
학력	중졸이하	1	5.0000	.	1.436	.223
	고졸	32	3.7188	.95830		
	전문대졸	63	3.7302	.94964		
	대학 졸	102	3.8529	.88605		
	대학원 이상	10	3.2500	1.35913		
직업	전문직	32	3.4219	1.15779	1.609	.159
	사무직	54	3.9167	.82273		
	기술 및 생산직	18	3.8056	.90973		
	사업	10	3.4500	1.44241		
	전업주부	56	3.9018	.86034		
	기타	38	3.7368	.86005		
소득	150만원 미만	17	3.3824	1.06843	3.291	.012*
	150~300만원	111	2.8634	.92144		
	300~450만원	60	3.8750	.76261		
	450~600만원	14	3.6786	1.01161		
	600만원 이상	6	2.6667	1.72240		
주변 가족 지원	예	80	3.7125	.98010	.506	.478
	아니오	128	3.8086	.92668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유의확률임

## 6) 사회문화 조성의 집단간 차이분석

사회문화 조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적 차이 분석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사회문화 조성의 개인적 특성간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	P
연령	20~25세	7	3.2619	.99934	.237	.917
	26~30세	46	2.8406	.75519		
	31~35세	76	2.7171	.64809		

	36~40세	56	2.9256	.71698		
	41세 이상	23	2.7333	.92363		
학력	중졸이하	1	3.3333	.	.237	.917
	고졸	32	2.9010	.63055		
	전문대졸	63	2.8677	.75382		
	대학 졸	102	2.8366	.69967		
	대학원 이상	10	2.7333	.92363		
직업	전문직	32	2.7813	.77764	.470	.799
	사무직	54	2.9537	.74565		
	기술 및 생산직	18	2.9259	.66476		
	사업	10	2.9167	.67700		
	전업주부	56	2.7738	.59665		
	기타	38	2.8377	.81418		
소득	150만원 미만	17	2.8529	.71899	1.087	.364
	150~300만원	111	2.8634	.74644		
	300~450만원	60	2.8583	.64573		
	450~600만원	14	2.5714	.73297		
	600만원 이상	6	3.2778	.60246		
주변 가족 지원	예	80	2.8458	.68167	.014*	.904
	아니오	128	2.8581	.73415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유의확률임

## 7) 누리과정 제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누리과정 제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소득에서  $f = 2.923$ ,  $p = .022$  로 누리과정 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누리과정 제도의 개인적 특성간 차이분석

구분		N	M	SD	T/F	P
연령	20~25세	7	3.5714	.60749	1.600	.176
	26~30세	46	3.0000	.80277		
	31~35세	76	3.1711	.71439		
	36~40세	56	3.0625	.76314		
	41세 이상	23	3.0435	.82453		
학력	중졸이하	1	2.5000	.	1.600	.176
	고졸	32	3.0469	.90125		
	전문대졸	63	2.9444	.77309		
	대학 졸	102	3.2010	.63425		
	대학원 이상	10	3.3500	1.17969		

직업	전문직	32	3.1094	1.01389	.821	.536
	사무직	54	3.0463	.63890		
	기술 및 생산직	18	3.1667	.70711		
	사업	10	2.7000	1.08525		
	전업주부	56	3.1964	.66523		
	기타	38	3.1184	.73000		
소득	150만원 미만	17	2.7059	.81123	2.923	.022*
	150~300만원	111	3.0721	.73499		
	300~450만원	60	3.3083	.67077		
	450~600만원	14	3.1429	.69139		
	600만원 이상	6	2.6667	1.40238		
주변 가족 지원	예	80	3.1063	.74923	.002*	.966
	아니오	128	3.1016	.76683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유의확률임

### 3. 변수간의 상관분석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 파악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들의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의미하며,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 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사이로 나타나며,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이수현 2015, pp.58-59).

본 연구에서는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피어슨 상관분석이란 비율 및 등간척도로 측정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이훈영, 2009, p.96). 그 결과 주요 변수들 출산의지, 자녀 가치관,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확대, 누리과정 도입,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사회문화조성 등 7개의 변수들간에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거의 모든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에 제시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의지와 자녀가치관이  $r=.501^{**}$ 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보육

서비스 질과 사회문화 조성간의  $r=.455^{**}$ , 보육비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이  $r=.4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 변수간의 상관관계

	출산의지	X1	X2	X3	X4	X5	X6
출산의지	1						
자녀가치관 (X1)	.501 <sup>***</sup> (.000)	1					
보육비지원 (X2)	.037 (.601)	.060 (.387)	1				
보육시설확대 (X3)	.204 <sup>**</sup> (.003)	.178 <sup>**</sup> (.010)	.189 <sup>**</sup> (.006)	1			
누리과정 (X4)	.117 (.093)	.103 (.138)	.351 <sup>***</sup> (.000)	.329 <sup>***</sup> (.000)	1		
보육서비스질 (X5)	.082 (.238)	.182 <sup>**</sup> (.008)	.424 <sup>***</sup> (.000)	.244 <sup>***</sup> (.000)	.395 <sup>***</sup> (.000)	1	
사회문화조성 (X6)	.041 (.556)	.059 (.396)	.397 <sup>***</sup> (.000)	.130 (.062)	.348 <sup>***</sup> (.000)	.455 <sup>***</sup> (.000)	1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 )내의 숫자는 유의확률임



## 제 4 절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영유아보육정책(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사회문화 조성, 누리과정 제도 도입)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확장한 것이다. 독립변수는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사회문화 조성, 누리과정 제도 도입 등 4개 요인으로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해 보았다.

### 1. 출산의지에 대한 영유아보육정책의 영향

#### <가설1>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의 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문화 조성 ( $\beta=.289$ ,  $p=.000$ ), 보육비지원 ( $\beta=.226$ ,  $p=.001$ ), 누리과정제도 ( $\beta=.181$ ,  $p=.007$ ), 보육시설확대 ( $\beta=.105$ ,  $p=.089$ ) 순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설확대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4-13>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040	.233		4.473	.000		
1 보육비지원	.189	.054	.226	3.470	.001	.785	1.273
보육시설확대	.076	.045	.105	1.707	.089	.885	1.129
문화조성	.280	.063	.289	4.459	.000	.793	1.261

누리과정	.165	.060	.181	2.738	.007	.760	1.315
------	------	------	------	-------	------	------	-------

##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가설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2는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보육 서비스질	3.462	.262		13.223	.000		
	.116	.081	.099	1.433	.153	1.000	1.000

## 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수를 검증할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동일하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순서적인 측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존재하는 변수이다. 즉,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가설 5> 영유아보육 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자녀출산에 대해 지각하는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5-1, 5-2, 5-3, 5-4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표 4-15>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가설 5-1>의 구체적으로 보육비지원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424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42,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02, 매개변수가 .10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설5-2> 자녀출산은 보육시설확대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244 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14,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202, 매개변수가 .05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까지는 유의하였으나 3단계매개변수에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설5-3> 자녀출산은 사회문화조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455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45,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00, 매개변수가 .09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문화조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설5-4> 자녀출산은 누리과정제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395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19,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95, 매개변수가 .062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

값과 p값 1단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누리과정제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15>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검증단계	표준화계수 (베타)	t	유의확률	R 제곱
보육비지원→ 보육서비스질 적수준→출산 의지	1단계	.424	6.719	.000	.180
	2단계	.040	.577	.565	.002
	3단계(독립변수)	-.002	-.031	.975	.010
	3단계(매개변수)	.100	1.308	.192	
보육시설확대 →보육서비스 질적수준→출 산의지	1단계	.244	3.617	.000	.060
	2단계	.214	3.148	.002	.046
	3단계(독립변수)	.202	2.876	.004	.048
	3단계(매개변수)	.050	.711	.478	
사회문화조성 →보육서비스 질적수준→출 산의지	1단계	.455	7.337	.000	.207
	2단계	.045	.646	.519	.002
	3단계(독립변수)	.000	-.004	.997	.010
	3단계(매개변수)	.099	1.274	.204	
누리과정제도 →보육서비스 질적수준→출 산의지	1단계	.395	6.179	.000	.156
	2단계	.119	1.724	.086	.014
	3단계(독립변수)	.095	1.257	.210	.017
	3단계(매개변수)	.062	.821	.413	

#### 4.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의 분석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2단계는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3단계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절차이다.

먼저 개인적 특성인 학력, 가치관, 주변가족 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사회문화 조성, 누리과정제도 도입의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 <가설 3>** 영유아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보육비 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특성간의 조절효과

(1)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조절효과  
 <가설3-1-1>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16>과 같다.

모형 요약 1,2,3은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며, 제 3 단계인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나타내는 R 제곱 변화량 및 F 변화량과 F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파악해야 한다. R 제곱 변화량을 보면 모형 1은 18.0%, 모형 2는 20.4%, 모형 3은 26.0%로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0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작은 수 이므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24	.180	.176	.62657	.180	45.144	1	206	.000
2	.452	.204	.197	.61856	.025	6.370	1	205	.012
3	.510	.260	.249	.59795	.056	15.379	1	204	.000

a.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b.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자녀가치
c.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자녀가치, 보육비가치조절

(2)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학력의 조절효과 <가설3-1-2>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학력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17>과 같다. R 제곱 변화량을 보면 모형 1은 18.0%, 모형 2는 21.7%, 모형 3은 23.0%로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57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1-2의 “학력은 보육비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17>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24	.180	.176	.62657	.180	45.144	1	206	.000
2	.466	.217	.209	.61379	.037	9.668	1	205	.002
3	.480	.230	.219	.60986	.014	3.650	1	204	.057
a.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b.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학력									
c.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학력, 보육비학력조절									

(3)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주변가족 육아지원의 조절효과

<가설3-1-3>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주변가족 육아지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18>과 같다.

R 제곱 변화량을 보면 모형 1은 18.0%, 모형 2는 18.7%, 모형 3은 20.9%로 점

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20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작은 수 이므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보육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24	.180	.176	.62657	.180	45.144	1	206	.000
2	.433	.187	.180	.62515	.008	1.936	1	205	.166
3	.457	.209	.197	.61845	.021	5.466	1	204	.020
a.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b.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지원									
c. 예측값: (상수), 보육비지원, 지원, 보육비가족지원조절									

## 2)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개인적 특성간의 조절효과

(1)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조절효과 <가설3-2-1>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19>과 같다.

R 제곱 변화량을 보면 모형 1은 6.0%, 모형 2는 8.7%, 모형 3은 13.3%로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0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작은 수 이므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244	.060	.055	.67085	.060	13.083	1	206	.000

2	.282	.080	.071	.66531	.020	4.445	1	205	.036
3	.365	.133	.121	.64717	.054	12.657	1	204	.000
a.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b.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자녀가치									
c.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자녀가치, 시설가치조절									

(2)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학력의 조절효과 <가설3-2-2>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학력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0>과 같다.

R 제곱 변화량을 보면 모형 1은 6.0%, 모형 2는 9.3%, 모형 3은 11.8%로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17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작은 수 이므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244	.060	.055	.67085	.060	13.083	1	206	.000
2	.305	.093	.084	.66045	.033	7.539	1	205	.007
3	.344	.118	.105	.65282	.025	5.823	1	204	.017
a.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b.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학력									
c.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학력, 시설학력조절									

(3)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주변가족육아지원의 조절효과

<가설3-2-3>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주변가족육



아지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1>과 같다.

R 제곱 변화량을 보면 모형 1은 6.0%, 모형 2는 6.7%, 모형 3은 8.1%로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89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2-3의 “주변가족육아지원은 보육시설확대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21> 보육시설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244	.060	.055	.67085	.060	13.083	1	206	.000
2	.260	.067	.058	.66975	.008	1.681	1	205	.196
3	.284	.081	.067	.66664	.013	2.917	1	204	.089
a.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b.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지원									
c. 예측값: (상수), 보육시설확대, 지원, 시설주변가족조절									

### 3)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

(1)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조절효과 <가설3-3-1>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2>과 같다.

R 제곱 변화량을 보면 모형 1은 20.7%, 모형 2는 23.1%, 모형 3은 23.8%로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182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2-3의 “자녀가치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22>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55	.207	.203	.61601	.207	53.826	1	206	.000
2	.481	.231	.224	.60798	.024	6.478	1	205	.012
3	.488	.238	.227	.60681	.007	1.796	1	204	.182
a.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b.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자녀가치									
c.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자녀가치, 문화가치조절									

(2)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학력의 조절효과 <가설3-3-2>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학력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3>과 같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898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3-2의 “학력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23>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55	.207	.203	.61601	.207	53.826	1	206	.000
2	.498	.248	.241	.60122	.041	11.260	1	205	.001
3	.499	.249	.237	.60267	.000	.017	1	204	.898
a.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b.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학력									
c.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학력, 문화학력조절									

(3)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주변가족육아지원의 조절효과

<가설3-3-3>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서 주변가족육아 지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4>과 같다. 제 3단계 유의 확률 F 변화량은 .078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3-3의 “주변가족육아지원은 문화조성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24> 사회문화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지원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455	.207	.203	.61601	.207	53.826	1	206	.000
2	.462	.213	.206	.61508	.006	1.629	1	205	.203
3	.475	.225	.214	.61190	.012	3.138	1	204	.078
a.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b.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지원									
c. 예측값: (상수), 문화조성, 지원, 문화주변가족조절									

#### 4)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

(1)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

<가설3-4-1>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5>과 같다.

R 제곱 변화량을 보면 모형 1은 15.6%, 모형 2는 17.7%, 모형 3은 26.6%로 점 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0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작은 수 이므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395	.156	.152	.63545	.156	38.177	1	206	.000
2	.420	.177	.169	.62929	.020	5.050	1	205	.026
3	.515	.266	.255	.59578	.089	24.707	1	204	.000
a.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b.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자녀가치									
c.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자녀가치, 누리가치조절									

(2)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가설3-4-2>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6>과 같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616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4-2의 “학력은 누리과정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26>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395	.156	.152	.63545	.156	38.177	1	206	.000
2	.415	.172	.164	.63110	.016	3.850	1	205	.051
3	.416	.173	.161	.63225	.001	.253	1	204	.616
a.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b.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학력									

c.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학력, 누리학력조절

(3)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  
 <가설3-4-3>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7>과 같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70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4-3의 “주변가족육아지원은 누리과정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27> 누리과정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395	.156	.152	.63545	.156	38.177	1	206	.000
2	.402	.162	.154	.63492	.005	1.341	1	205	.248
3	.419	.175	.163	.63138	.013	3.306	1	204	.070
a.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b.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지원									
c. 예측값: (상수), 누리과정, 지원, 누리주변가족조절									

5)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

<가설 4>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 (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  
 <가설4-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8>과 같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502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1의 “자녀가치는 출산의지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28>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자녀가치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099	.010	.005	.80053	.010	2.053	1	206	.153
2	.532	.283	.276	.68304	.273	77.962	1	205	.000
3	.533	.284	.274	.68395	.002	.452	1	204	.502
a.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b.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자녀가치									
c.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자녀가치, 서비스가치조절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학력 조절효과

<가설4-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29>과 같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272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2의 “자녀가치는 출산의지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29>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학력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099	.010	.005	.80053	.010	2.053	1	206	.153
2	.122	.015	.005	.80039	.005	1.070	1	205	.302

3	.144	.021	.006	.79997	.006	1.213	1	204	.272
a.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b.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학력									
c.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학력, 서비스학력조절									

(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

<가설4-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요약을 보면 <표 4-30>과 같다. 제 3단계 유의확률 F 변화량은 .148로 나타났는데 이는 0.05보다 큰 수 이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3의 “주변가족육아지원은 출산의지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4-30>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간의 주변가족육아지원  
 조절효과분석

모형 요약d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099	.010	.005	.80053	.010	2.053	1	206	.153
2	.190	.036	.027	.79173	.026	5.603	1	205	.019
3	.215	.046	.032	.78960	.010	2.107	1	204	.148
a.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b.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지원									
c. 예측값: (상수), 보육서비스질, 지원, 서비스가족조절									

이와 같이 연구가설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표 4-31>와 같다.

<표 4-31> 연구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가설내용	결과
------	------	----

가설 1	*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채택
	1-1. 보육비 지원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채택
	1-2. 보육시설 확대가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기각
	1-3. 사회문화 조성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채택
	1-4. 누리과정 제도가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 영유아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채택
	3-1-1. 보육비 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3-1-2. 보육비 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3-1-3. 보육비 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가족 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3-2-1. 보육시설 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3-2-2. 보육시설 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3-2-3. 보육시설 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가족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3-3-1. 사회문화 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3-3-2. 사회문화 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3-3-3. 사회문화 조성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가족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3-4-1. 누리과정 제도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채택



	자녀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2. 누리과정 제도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3-4-3. 누리과정 제도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가족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	<b>*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b>	기각
	4-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4-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4-3.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가족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5	<b>* 영유아보육 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b>	일부채택
	5-1. 자녀출산은 보육비 지원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5-2. 자녀출산은 보육시설 확대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부분채택
	5-3. 자녀출산은 사회문화 조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5-4. 자녀출산은 누리과정 제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 제 5 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정책의 하위변수인 보육비지원, 보육시설확대, 사회문화조성, 누리과정제도가 기혼 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특성의 조

절효과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매개효과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표본 설문조사와 실증연구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 될 수 있다.

## 1. 특성별 차이분석결과

영유아보육정책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해법과 생산가능 인구 증가 두 가지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하고 질 높은 교육에 중점을 두어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자들이 현재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아동이 일정 연령이 되면 단체 생활에 대한 적응과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당연히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부모 욕구가 단순히 보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본 논문의 개인의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맞벌이에서 예(평균=3.86)와 아니오(평균=3.76)의 대한 차이는 맞벌이 하는 여성이 맞벌이 안하는 여성보다 더 많았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73.1%, 전업주부가 26.9%로 나왔다. 출산의지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에서도 전업주부보다 전문직에 있는 여성이 출산의지가 더 높았다. 취업여성들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으므로 그 원인은 기혼으로 취업여성이 보육시설에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보육시설의 안전과 건강관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유미자(2007)의 연구에서도 말해주고 있다. 이용복(2004)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모의 어머니의 연령(-), 결혼기간(-), 긴급도움(-)이며 보육시설의 희망 입소시기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주며, 비취업모에서 어머니의 학력(+)으로 물리적 환경과 보육시설생활적응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현옥(2011) 연구에서 취업 기혼자와 비취업 기혼자 모두 무자녀 소신이 높으면서 출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결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부정적 입장이라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취업모의 경제 활동을 통한 가정 경제적 지원이

높아져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겪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은 생산가능 인구 증가의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학력에 대한 개인적 특성 중 고졸은 32명(15.4%), 대학교졸업 102명(49.0%), 대학원 이상 10명(4.8%)로 교육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산의지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집단간 차이 분석결과는 고졸(평균=3.54)과 대학원졸업이상(평균=4.26)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자녀수가 많아진다는 김소희(2014)연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이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난 이현옥(2011)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김도영(2008) 연구에서도 자녀출산인식에 대한 응답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원졸업이상에서 출산의지가 높게 나온 이유는 늦은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 할 때 여성의 출산과 육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주변가족육아지원에서 지원이 있는 경우 80명(38.5%), 없는 경우 128명(61.5%)으로 나타났으며, 확대가족 형태가 대부분이고 주변가족육아지원이 있을 경우 시부모·친정부모가 최소 거리(김광수, 2010)에 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지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주변가족육아지원의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는 주변가족육아지원이 있을 경우(평균=4.00), 주변가족육아지원이 없는 경우(평균=3.70)로 나타나 주변가족육아지원이 있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연구는 이용복(2004), 김광수(2010)의 연구에서도 동거부모, 긴급도움, 주변에 돌봐줄 사람 유무, 부양부모 동거 여부 등 관련 연구에서도 주변 가족 육아지원이 높으면 출산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광수(2010)연구에서 보육시설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이 통제변수의 설명력을 지녀 출산의도에 설명력이 높다고 하였다. 이런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동거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으며, 긴급시 주변에 아이를 위탁할 만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정도는 보육비지원 평균 2.83, 보육시설 확대 3.77, 사회문화조성 2.85, 누리과정제도 3.14로 나타나 네 가지 변수 요인의 모든 항목에서 2.8점 이상 점수를 나타냈다.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온 결과는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출산의지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중 연령에서 연령 36~40세(평균=3.91)가 가장 높았고, 직업에서는 전문직(평균=4.03)이 소득에서는 600만 원 이상(평균=4.22), 주변가족육아지원(평균=4.00)로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전문직에서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자녀는 당연히 있어야 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가치관에 대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가 적을수록 좋다는 질문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사무직이거나 주변가족육아지원이 있는 집단에서 자녀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주변가족육아지원의 도움이 있을 경우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해석된다.

## 2. 가설의 검증결과

가설1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정책을 보육비지원, 보육시설확대, 누리과정제도, 사회문화조성 등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조성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보육비지원, 누리과정제도 순이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확대는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주(2012) 연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본 연구는 보육시설 확대를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유미자, 2007) 모두를 보육시설 확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김도영; 2008, 장석주·윤용주, 2012) 연구와 같이 부모들은 정부에서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교사의 질이 높은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원인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녀를 돌봄으로써 스트레스가 높는데, 육아휴직제도 및 직장생활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대해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보육비지원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실시된 무상보육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질문에 ‘출산장려를 위해 보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정부가 전액지원이 39.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부모와 정부가 50% 부담이 24.0%,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이 23.6%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이 우선될 경우 대상자들의 자녀출산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망 자녀수는 2명이 55.8%, 3명이 20.2%로 1명이 14.9%, 5명이상이 2.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는 2명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2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설검증 결과 기각되었다.

가설3은 조절효과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영유아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영유아보육정책의 하위변인인 보육비지원에서 개인적 특성 중 자녀가치관에서 설명력( $R^2$ )을 보면 1단계의 보육비지원인 통제 변인의 설명력( $R^2$ )은 18%이다. 2단계에서 보육비지원에 자녀가치관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 $R^2$ )은 20.4%, 3단계에서 보육비지원에 자녀가치관과 보육비가치조절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 $R^2$ )은 26%로, 단계마다 설명력( $R^2$ )은 모두 증가하였다. 주변가족육아지원에서 설명력( $R^2$ )을 보면 1단계 보육비지원인 통제 변인의 설명력( $R^2$ )은 18%이다. 2단계에서 보육비지원에 주변가족육아지원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 $R^2$ )은 18.7%, 3단계에서 보육비지원에 주변가족육아지원과 보육비가족지원조절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 $R^2$ )은 20.9%로, 단계마다 설명력( $R^2$ )은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녀가치

관, 주변가족육아지원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영유아보육정책의 하위변수인 보육비지원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사이에서 자녀가치관과 주변가족육아지원은 조절역할을 했으므로 가설이 검증되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의 이해관계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주변가족지원이 있을 경우 자녀가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보육비 지원에 따른 학력은 조절효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검증결과 기각되었다.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정책의 하위변인인 보육시설 확대에서 개인적 특성 중 자녀가치관과 학력을 조절변수로 하여 조절효과를 분석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치관과 학력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사이에서 자녀가치관과 학력이 조절역할을 했으므로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확대는 주변가족육아지원을 가설검증결과 조절역할을 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영유아보육정책의 하위변인인 사회문화 조성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사이에서 개인적 특성 중 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은 조절변수로 조절효과 분석한 결과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은 가설검증 결과 기각되었다.

영유아보육정책의 하위변인인 누리과정 제도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사이에서 개인적 특성 중 자녀가치관이 조절변수로 조절효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유아보육정책의 하위변인인 누리과정 제도에서 개인적 특성 중 자녀가치관에서 설명력( $R^2$ )을 보면 1단계의 누리과정 제도인 통제 변인의 설명력( $R^2$ )은 15.6%이다. 2단계에서 누리과정 제도에 자녀가치관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 $R^2$ )은 17.7%, 3단계에서 누리과정 제도에 자녀가치관과 누리과정조절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 $R^2$ )은 26.6%로, 단계마다 설명력( $R^2$ )은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제도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사이에서 자녀가치관은 조절역할을 했으므로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누리과정 제도가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유아의 심신 건강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돕는데 따른 부모의 자녀가치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제도에 대한 학력과 주변가족육아지원은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가설4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검증 결과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과 출산의지에 사이에서 개인적 특성은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가설4는 기각되었다.

가설5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에서 영유아보육정책의 하위변수인 보육시설 확대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부분채택 되었지만 보육시설 확대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매개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제도, 부모참여 모니터링,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등 보육시설 서비스에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출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점 중 하나인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하여 보육비지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장석주, 2012)와 함께 누리과정 제도 정착이 출산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누리과정 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각 지방마다 불안한 재정적 요인으로 해년마다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아동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의 시설 다양화와 재정적 지원의 안정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현재 자구상의 여러 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합계출산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에서도 세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에서는 1994년 시작된 유아교육개혁방안과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1995~1997년의 3년 동안 보육시설확충계획으로 보육시설 확대를 주도하여 보육시설이 1995년 9,085개에서 2014년 현재 43,742개로 20년 사이에 약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혼 연령의 상승과 맞물려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과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와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다양한 지원방안과 공교육실현을 위한 만5세아 무상교육확대로 영유아보육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의 주요정책인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영유아보육정책의 내실화 및 방향정립과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있는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에 초점을 두고 영유아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분석하였다.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출산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현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도 검증,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와 영유아보육정책의 네 가지 변수가 서로 상관이 있는지 상관관계와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



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특성별 차이분석결과

첫째,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는 보육비지원이 평균 2.83, 보육시설확대 평균 3.77, 사회문화조성 평균 2.85, 누리과정제도 평균 3.10로 나타나 네 가지 변수 요인의 모든 항목에서 2.8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었는지 인식에 대하여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와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출산의지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연령 20~25세 평균 3.33로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36~40세 평균 3.91로 나타났다. 출산의지에 대한 차이는 20대 초반 연령과 30대 후반 연령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도 고졸(평균=3.54)보다 대학원이상(평균=4.26)이 자녀출산의지가 높았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150-300만원(평균=3.72)으로 낮게 나타났다 600만원 이상(평균=4.22)으로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출산의지에 대한 주변가족육아지원이 있을 경우(평균=4.00)와, 없을 경우(3.70)에 두 집단간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출산의지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가치관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변가족육아지원에서 집단간 차이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개인적 특성에서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 출산의지에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개인적 특성에서 자녀가치가 높게 인식된 이유는 현재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현상에 개인가치관이 영향을 받아 개인의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인의 자녀가치관이 높게 나타나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방영이(2010) 연구에서 자녀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강할수록 출산율이 높고,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약하다고 하였다. 방영이 연구와 본 연구는 연령에 따라 출산에 대한 의지가 반대되는 의견이 나타났다. 방영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높아지고 남성이 육아에 대해 분담을 해주지 않을 경우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박우현(2011) 연구에서

출산자녀수에 따라 어떠한 변수들이 출산의지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 자녀가 없는 경우 성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출산의지가 낮게 나타나고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정원(2007) 연구에서 여성의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과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후속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녀가치관은 출산의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종교적으로 출산행위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보육비 지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변가족육아지원에서 집단간 차이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개인적 특성에서 보육비 지원에 대한 인식이 보통으로 나타나 보육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시설 확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연령, 학력, 직업, 주변가족육아지원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소득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소득 600만 원 이상(평균=2.66)과, 300-450만원(평균=3.87)의 두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중간 정도에 있는 집단에서 보육시설 확대가 되었을 때 출산의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문화조성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변가족육아지원에서 집단간 차이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개인적 특성에서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으로 나타나 사회문화 조성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누리과정 제도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연령, 학력, 직업, 주변가족육아지원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득에서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600만 원 이상(평균=2.66)과 300~450만원(평균=3.30)의 두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중간 정도에 있는 집단에서 누리과정 지원이 있을 때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설검증 분석결과

첫째, 영유아보육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시설확대를 제외한 보육비지원, 사회문화조성, 누리과정제도는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확대가 출산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보육시설이 주택에 근접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것으로 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비지원, 사회문화조성, 누리과정제도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미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및 기타 사교육비 소모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에서 조절변수(자녀가치관, 학력, 주변가족육아지원)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육비지원, 보육시설확대, 누리과정제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에 따른 출산의지는 전문직과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었을 때 출산의지가 높았으며 이것은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때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양육비 부담과 경제상황의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학력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녀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우현(2011)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 요인과 출산의지와 관계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출산의지는 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와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문화조성은 개인적 특성에 조절효과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보육시설확대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비지원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가족지원의 조절효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보육 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은 매개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출산은 보육시설확대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244 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2단계, 3단

계 독립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나 3단계인 매개변수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의 최종연구모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수들간의 연구모형에서 중간에 매개되어 있는 변수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인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간접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다른 변수들 사이의 경로에 매개되어 있는 변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 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출산의지에 작용하는 변인들을 규명하여 기혼 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출산이 여성 생애의 한 순간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서 출산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에 대한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아이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불안감이 출산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녀 보육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보육비지원 정책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비지원으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가정양육간의 지원 차이가 있으며, 가정 양육 지원 부족으로 맞벌이 역차별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여 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보육비지원이 일·가정양립을 위해서 출산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부모가 편하게 외출하고 눈치 보지 않고 아동을 잠깐씩 맞길 수 있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 하겠다. 보육료지원

이 7세 이전의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어 초등 이후 아동들의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이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아동의 일정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완화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문화 가정과 장애아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5년 현재 다문화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다문화 가정이 시골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출산을 저하를 가져온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설문응답에서 보육비 외의 추가 금액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38.5%,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가 29.3%, 대체로 만족한다가 21.6%로 보육비 외의 추가 금액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각 대상자들에게 세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겠다.

둘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 출산에 따른 부·모의 육아휴직제도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의 탄력근무제의 활성화와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육아 개념인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가 지역사회문화에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인 기업이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였으나 누리과정 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누리과정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책임지고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제도가 출산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누리과정을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예산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불안한 재정 지원은 어린이집 자체 뿐 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아동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없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양육 경감과 출발선상 공정 기회 보장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초등과정과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누리과

정은 맞춤형 복지와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과 함께 미래대비 일자리 대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유아기의 기본 소양과 창의성에 맞추어 연령별로 구성하였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어머니들의 실질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 누리과정 교육의 목표인 영유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적 방향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서비스 질적인 측면이 강화되지 않고는 기혼여성의 출산율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열린 어린이집 여건 조성 정책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출산의지에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의 어떤 방식이 최선으로 평가되었는지 보육서비스 대상자는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보육시설을 공개하지 않거나 퇴출하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의 양적 확대를 위한 변인으로 보육정책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취업한 기혼여성들 중 주변가족육아지원이 없는 경우 장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간제 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주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보육으로 아동이 부모와 장시간 떨어져 있어 심리적 불안감과 발달 지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부 보육시설 관계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보육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유아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출

산의 주체인 여성과 자녀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영유아보육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영유아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광주광역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표본선정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혼 여성으로만 설정하여 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기혼 여성이 배척되어 표본선정의 지역적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광역시 전체와 농어촌 지역을 망라하여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자녀가 타 교육기관 이용과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기혼여성을 포함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 여성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래의 가입여성과 미혼 남성의 출산의지 조사가 결여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한계를 가진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미혼 남·여의 출산기피요인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영유아보육정책의 수요자 측면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는데 출산은 정책 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 즉 직장 내의 문제, 여성의 가사·보육문제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정책만으로 출산의지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공보육과 사교육간의 정책 모두의 포괄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져야할 것이다. 출산문제를 사회문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공익광고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국내문헌

- 강정식 (2005).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및 제도”, 『국회사무처』, 통권464호; p.120.
- 강영욱 (2005). “영유아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현구 (2014). “아동권리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보육법의 형성과정 및 입법” 관련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 김광수 (2010). “보육서비스 구성변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도영 (2008).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희 (2013).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희 (2013). “출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기혼여성과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승권 외 (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000-07호: p.162.
- 김주은 (2012).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원 (2011).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천시 보육시설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숙 (2007). “우리나라의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pp.107-135.
- 마미정 (2008). “맞벌이 부부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창진 (1987).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선호”, 『한국인구학회지』, 제524호: pp.7-12.



- 박미경 (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보육 시설확충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숙자 (2003).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제8호: pp.121-145.
- 박영애 (2012).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우현 (2011). “출산의지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서 외 (2014). “출산 및 양육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구 (2013).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문주 (2010).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 정책의 방향성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영이 (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광일 (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민환 (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진희 (2011). “경제적 부담, 직업과 자녀관 및 보육정책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미순 (2010).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05). 『OECD 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 보건복지부. “외국의 저출산 정책”. 『OECD 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 보건복지부 (2010). 『저출산 고령화 계획,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 계획 확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 (2015). 『5천만이 함께 마련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 보건복지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안』.
- 보건복지부 (2015). 2015 보육사업안내.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7(2): p.285.
- 신윤정 (2009). “일본 저출산 정책의 시사점: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 한국법제연구원.
- 신윤정 (2013). “프랑스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법제 현황 및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 신효영·방은령 (2006), “결혼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조사”. 『한국심리학회』, Vol, 2006. No. 1: pp.326-327.
- 신효영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병철 (2004).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에 대한 일 고찰: 등장 배경, 도입목적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19집: pp.71-83..
- 앨빈 토플러 저, 이규행 역(1989). 『제3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오현아 (2013). “무상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자 (2007).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지역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소정 (2005). “보육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용주 (2012).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파주시 운정지역의 개인특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은숙 (2011).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강재 (2010).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삼식 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전자자원.
- 이삼식 외 (2009). “저출산의 파급 효과와 정책방안 정책보고”. 보건복지가족부·한

- 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 (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 (2011). “2011년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제171호: pp.59-68.
- 이삼식 외 (2012).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 이삼식 외 (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세희 (2008).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현 (2015).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족요인과 학교요인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연주 (2008).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복 (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인순 (2011). “한국기혼여성의 출산기피에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원 (2007). “유자녀취업 여성의 후속 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진면 외 (2014).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와 산업구조』.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옥 (20011). “한국여성의 출산형태 결정요인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훈영 (2006). 『SPSS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서울: 청람.
- 이흥탁 (1985). “맬더스(Malthus)와 그의 인구론 역사적 재조명”, 『한국인구학회지』, 8(2); pp.30-32.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서울: 법문사.
- 장석주 (2012). “보육정책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영남 (2012).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성호 (2010).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회』, 32(2): p.164.
- 정옥분 · 정순화 · 홍계옥 (2007). 『결혼과 가족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 정혜선 (2006).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녀수와 출산의지 및 출산장려 정책 요인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혜 (2009). “최근 독일이 저출산 대응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 최성일 (2006). “일·가족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pp.55-56.
- 최은영 외 4인 (2005). 『한국의 저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 여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국 출산력 및 결혼동향조사』.
- 한윤옥 (2011). “양육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기타

- 국방일보. 2015.05.27.
- 국가통계포털 KOSIS 2015. 장래인구추계.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 김상진, 인터넷, 2011,10,10.
- 누리과정해설집 2015.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보육자격관리사무국. <http://www.ctcm.or.kr/index.jsp>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 서울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 여성가족정책 사이버기록관. <http://archive.mogef.go.kr/result/>
- 여성부 (2001).

여성부 (2003). 전국 가족 조사 및 한국 가족 보고서.  
 예결산정보시스템 2014.  
 영유아보육법 2015.  
 육아정책개발센터. <http://www.kicce.re.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지표세상 (2014). 한국은행 국민소득,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청와대 :국정과제, 인수위 백서.  
 통계청, 합계출산율.  
 통계청, 합계출산율 OECD.  
<http://www.president.go.kr/kr/policy/whitepaper.php>

### 3. 국외문헌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p. 179-211.  
 Becker G. (1960), "An Economics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 down :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 Friendly Public Policy in 21*.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EL*. pp. 457-479.  
 Lopoo, L. M.(2001). "Does the cost of child care affect the timing of childbear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Mary K. Hamman. (2008). "Women and Childbearing". Ph. D. diss. Michigan State University.  
 Notestein, F.(1953), Economic Problems of Population Change,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sts Lodon: Oxford University Press.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London. 13:25.  
 Schultz. T.W.(1982),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Chicago Press.

Sleebos, Jolle E.Low. *Fertility Rate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Steven P. Martin.(2000). “Diverging Paths and Outcomes in Family Formation: Education, Marital Transitions, and Birth Timing of U.S. Women 1975-1995”. Ph. 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부 록>

## 설 문 지

###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학술적인 통계분석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 박희서

연구 책임자 : 한은숙 올림

I. 다음은 출산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곳에 √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2.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3.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하다.					
4. 나는 출산하기를 원한다.					

5. 귀하는 자녀를 출산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싶습니까?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II. 다음은 자녀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곳에 √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자녀가 세대계승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자녀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					
5. 자녀가 내 삶의 최우선이라고 생각 한다.					



6.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자녀가 적을수록 좋다.					
7. 자녀는 나의 삶과 별개로 생각한다.					

Ⅲ. 다음은 보육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곳에 번호를 적거나 √해 주세요.

무상보육이란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 이	내 용
만0~2세	소득과 관련 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만3~4세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보육료 지원
만5세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 유아학비 월20만원 지원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 통 이다	그 령 다	매우 그 령 다
1. 나는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만족한다.					
2. 나는 보육료, 유아학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3. 현재 실시된 무상보육제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되었다.					

4. 귀하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의 서비스 질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좋아졌다 ③ 보통이다  
④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5. 귀하는 출산장려를 위해 보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부모가 전부 부담 ② 부모와 정부가 50% 부담 ③ 정부가 전부 지원  
④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 ⑤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

6. 귀하는 보육비 외의 추가 금액(현장학습비, 재료비, 간식비, 특별활동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IV. 다음은 보육정책의 변화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곳에  $\sqrt{\hspace{1cm}}$  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령 다	매우 그 렇다
1. 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단체가 설치 운영)의 확대					
2. 사회복지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의 확대					
3. 민간어린이집(개인이 시설을 설치 운영)의 확대					
4.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의 확대					

V. 다음은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곳에  
√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령 다	매 우 그 령 다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2. 보육개발원 설치로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척도 개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3. 평가인증 제도의 확대로 보육시설의 보육환경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영아·장애아 보육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					
5.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양성교육은 교직원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6. 부모참여 모니터링은 열린 어린이집 여건 조성 서비스가 향상되었다.					
7.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및 교구보급으로 보육환경 수준이 향상되었다.					

VI. 다음은 영유아보육정책이 직장생활의 변화 및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곳에 √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양육에 대한 사회문화 조성이 잘 되어 있다.					
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잘 된 편이다.					
3. 자녀를 맡긴 후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					
4. 자녀를 맡긴 후 직장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줄었다.					
5. 자녀를 맡긴 후 자녀로 인한 부부갈등이 줄었다.					
6. 자녀를 맡긴 후 직장생활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자녀를 맡긴 후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					
8. 자녀를 맡긴 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9. 자녀를 맡긴 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					

VII. 다음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곳에 √해 주세요.

누리과정지원 - 보육비와 유치원비의 지원이 만3~5세까지 확대되었다.  
 5세 누리과정에서는 기본생활습관, 창의·인성교육을 전통문화와 함께 모든 영역에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구성하였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누리과정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누리과정지원이 가족의 육아 지원에 도움이 된다.					
3. 현재 누리과정지원은 연령이 확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VIII. 다음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번호를 적거나 √ 를 해주세요.**

1.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① 20~25세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40세 ⑤ 41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 ), 여( )

3. 귀하는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학 졸 ⑤ 대학원 이상

5.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

-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별거 ⑤ 이혼

6. 살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부모님과 동거 ⑤ 기타

7. 귀하의 직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

- ① 전문직(교수, 의사, 예술가 등) ② 사무직 ③ 기술 및 생산직 ④ 사업  
⑤ 전업주부 ⑥ 기타

8. 귀하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① 150만원 미만 ② 150~300만원 ③ 300~450만원 ④ 450~600만원 ⑤ 600만원 이상

9. 귀하는 주변가족 지원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귀하의 육아 돌봄에 대한 주변가족지원이 있다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

\* 감사합니다 \*

